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예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오후의 콘서트>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예술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772383 836002  
ISSN 2383-8361

# ART × TECH Lab

**테마 스토리**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아트×테크 창작랩

**아티스트 토크**  
기획자들의 이야기: 김도원·구래연

**미리보기**  
오페라 정원 <바람의 노래>

# 오·페·라·정·원

콘서트 오페라 <바람의 노래>

한국동요의 서정으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감성 짙은 창작 오페라

티켓 전석 40,000원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2026.7.11.SAT  
5:0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26성남작가조명전 II 김홍년

KIM HONG NYUN

# Dreams in Dialogue

## 꿈의 대화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작품(花蝶)-Blue-E60-III 2025 Acrylic on Canvas 97\*97cm

2026.5.15

2026.7.12

성남큐브미술관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매주 월요일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 문의 (031)783-8143-9 | www.museum.snart.or.kr



2026 성남아트센터

# 키즈 페스티벌

가족음악극 **뽀빠이** 8.8.SAT



전래동화 클래식 **별주부전** 8.8.SAT

가족뮤지컬 **넘버블록스** 8.1.SAT-8.2.SUN



가족인형극 **산초와 돈키호테** 8.12.WED



가족인형극 **코없는 코끼리 코바** 8.14.FRI



8.1.SAT - 14.FRI

**SNART**

오페라하우스·콘서트홀·  
양상블시어터

예술이 뒤섞이는 도시의 실험실

# Lille 3000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바꾸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젝트, 릴3000Lille3000. 이 페스티벌이 열릴 때마다 프랑스 북부 도시 릴Lille의 공기는 달라진다. 기차역과 공장 지대, 광장과 거리, 오래된 건물과 공공 건축물 사이로 거대한 설치 작업과 공연, 음악이 스며들고, 사람들은 일상의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예술과 마주한다.

2004년 릴이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된 이후 그 유산을 이어 가며 시작한 릴3000은 동시대 예술과 도시, 공동체를 연결하며 릴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왔다. 그렇게 3년마다 대형 테마 시즌과 전시들은 특정한 문화권과 동시대적 주제를 중심으로 미술, 공연, 거리 예술, 디자인, 건축, 음식 문화를 엮어 내며 도시를 새롭게 환기해 왔다. 그리고 2026년 봄, 릴3000은 프랑스문화원이 주관하는 '지중해 시즌 2026'을 맞아 가르 생 소뵈르Gare Saint Sauveur를 '가르 메디테라네 Gare Méditerranée'로 탈바꿈시킨다. 한때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던 철도역은 이제 전시와 공연, 축제와 미식이 뒤섞이는 도시의 실험실이 된다. 이번 시즌 키워드는 '지중해'. 단순한 지역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언어와 기억, 이동과 혼종성이 교차하는 문화적 풍경으로서의 지중해다. 이 공간에서는 모로코-튀니지-알제리 출신 작가들과 프랑스 디아스포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해 정체성과 기억, 이주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특히 올파 페키Olfa Feki가 큐레이팅한 전시 <트라베르세Traversées>는 대형 설치 작업과 몰입형 공간 연출을 통해 관객을 '경계 사이의 감각' 속으로 이끈다. 동시대의 질문들을 도시 안으로 끌어오며, 예술이 어떻게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이는 릴3000이 예술을 거창한 제도 안에 가둔 감상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도시의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 움직이는 경험으로 인식해 왔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릴3000은 질문한다. 도시는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술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통로를 만들 수 있는가. 오래된 역사를 품은 기차역은 이제 사람들을 먼 곳으로 실어 나르는 대신, 서로 다른 기억과 감각이 교차하는 플랫폼이 되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글 임보연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 편집장  
사진 제공 프랑스 관광청(France.fr/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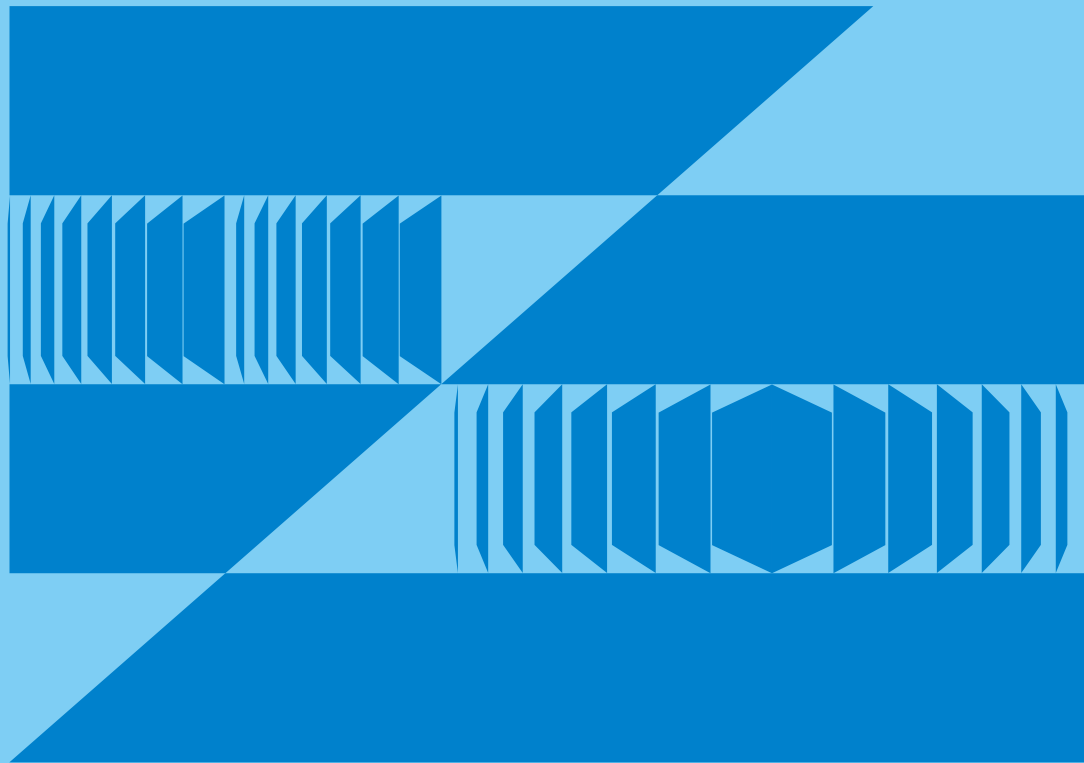


©Lightmotiv

# CONTENTS

## 2026

### JUNE & JULY



성남문화재단 격월간(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 2026년 06+07월호

통권 187호(비매품) 2026년 6월 1일 발행 |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윤정국 | 편집인 신준범  
 기획·편집 손세은 seson@snart.or.kr | 교열 이지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30 | 홈페이지 www.snart.or.kr | 편집·디자인 (주)에이저커뮤니케이션즈 02-763-8600 | 인쇄 문덕인쇄



<아트뷰>  
웹진 바로가기



<아트뷰>  
뉴스레터 구독하기

#### THEME STORY

- 08 테마스토리 1 깊이보기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아트×테크 창작랩
- 12 테마스토리 2 아티스트 토크  
기획자들의 이야기: 김도원·구래연
- 18 테마스토리 3 아티스트 토크  
참여자들의 이야기: 뉴아트 클럽 소개하기
- 26 테마스토리 4 칼럼  
예술기술 융합의 현재와 미래

#### VIEW

- 34 미리보기 1  
오페라 정원 <피가로의 결혼>
- 38 미리보기 2  
오페라 정원 <바람의 노래>
- 40 미리보기 3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 42 미리보기 4  
2026 발레 스타즈
- 44 미리보기 5  
2026 여름특별기획전 <캐서린 번하드 특별전>
- 48 미리보기 6  
2026 성남작가조명전Ⅱ 김홍년  
<꿈의 대화: Dreams in Dialogue>
- 50 인터뷰  
<오후의 콘서트> 진행자,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 54 깊이보기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Ⅲ 브라질 보사노바

#### CULTURE

- 60 오페라 산책  
알고 보면 쉬운 오페라 이야기 - 셰익스피어와 오페라
- 66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별새>
- 70 BOOK  
이 한권의 책

#### INSIDE SEONGNAM

- 74 성남의 예술가  
기획하는 시각예술인 황지희
- 80 스케치  
평일 낮, 성남아트센터러 가다
- 86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 87 6·7월의 큐레이션
- 93 성남문화예술계 소식
- 97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 98 성남문화재단 공간 탐구생활: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

# VOL. 187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람데뉴 울트라 화이트, 미스틱)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아트×테크 창작랩

기술과 예술이 경계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오늘날, 예술가에게 기술은 창작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는 배우고, 실험하고, 교류하는 창작자의 거점 <아트×테크 창작랩>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창작랩의 조성 배경과 주요 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 공간을 함께 기획·운영하고 있는 구래연·김도원 기획자에게서 운영 방향과 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또한 창작랩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뉴아트 클럽>과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예술기술 융합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가늠해 봅니다.



08

THEME STORY 1 깊이보기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아트×테크 창작랩

12

THEME STORY 2 아티스트 토크  
기획자들의 이야기: 김도원·구래연

18

THEME STORY 3 아티스트 토크  
참여자들의 이야기: 뉴아트 클럽 소개하기

26

THEME STORY 4 칼럼  
예술기술 융합의 현재와 미래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아트x테크 창작랩

# 모이고 배우고 실험하는 기술 융합 발전소

성남문화재단의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지난해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가  
예술가들의 기술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 새롭게  
조성한 <아트x테크 창작랩>은  
그 관계와 배움을 이어갈 물리적  
거점이자 창작의 실험실로 기능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은 기술을  
매개로 서로의 작업을 나누며 성남형  
예술기술 융합의 가능성을 넓혀 간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아트x테크 창작랩에서 진행된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 2기



1



2

1.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주사위 놀이로 풀어낸 인터랙티브 설치 <RollxRolexRule> (박심정훈, 전도희, 김현동, 이충현)  
2.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키네틱 아트 <Plunge> (전석희, 신호훈, 홍세정)

기술은 이제 예술가에게 창작의 질문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증강현실과 가상 현실, 로보틱스, 키네틱, 사운드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기술은 이미 동시대 예술의 주요한 재료이자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익히느냐가 아니라, 예술가가 이를 자신의 감각과 언어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러한 예술기술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이하 업스케일링 성남)를 선보였다. 판교테크노밸리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 기반과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닌 성남의 도시적 특성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며 자신의 창작 역할을 확장하는 커뮤니티형 프로그램이다. 1기 참여 작가들은 서로 다른 장르와 기술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만나 기술 스테

디와 프로젝트 창작 과정을 함께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는 성남페스티벌 미디어 아트, 공연 연계 콘텐츠, 지역 기반 프로젝트 등 후속 창작 활동으로 이어졌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아트×테크 창작랩>(이하 창작랩)은 성남의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를 한 걸음 더 확장하는 시도다. 지난해 <업스케일링 성남>이 예술가들의 기술 학습을 통해 '사람'과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면, 올해 창작랩은 그 관계가 지속되고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유희 공간에 마련된 창작랩은 소모임과 학습, 연구와 개발, 창작 실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큐브플라자 내 미디어센터, 반달 갤러리 등과 연계해 학습과 창작, 발표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예술기술 융합의 장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기계의 움직임, 생성형 AI, 이미지와 게임 등 서로 다른 매체는 각자의 작업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실험의 재료가 된다. <뉴아트 클럽>이 입문과 상호 학습의 장이라면, 또 다른 창작랩 프로그램인 <기술 융합 실험실>은 보다 심화된 창작 실험의 장이다. 참여자들은 기술을 자신의 작업 언어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동료 창작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작업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는 '잘 작동하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만큼이나, 시행착오를 거치며 작업의 방향을 조정하고 다음 실험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창작랩이 단순한 장비 지원 공간이 아닌, '실험실'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창작의 실험이 모이는 새로운 출발점

올해 <업스케일링 성남> 2기의 활동도 창작랩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2기 참여 작가들은 이곳에서 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탐색하고, 기존 참여 작가와 멘토, <뉴아트 클럽> 구성원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창작 방향을 확장해 나간다. 5월 20일(수) 창작랩 개관식과 함께 진행된 <업스케일링 성남> 2기 오픈스튜디오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12주의 과정에 참여한 14명의 예술가와 3명의 멘토, 퍼실리테이터가 함께 만들어 낸 1차 결과물들이 펼쳐졌다.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주사위 놀이로 풀어낸 인터랙티브 설치 <RollxRolexRule> 박심정훈, 전도희, 김현동, 이충현, 소외된 마음을 AR 경험으로 구성한 <Mind Terrain> 최소이, 임주향,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키네틱 아트 <Plunge> 전석희, 신호훈, 홍세정 소개됐다. 이어 효모의 발효 과정을 통해 기술과 생명의 관계를 다룬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베이킹 아스트로넛> 여가은, 유승협, 관계 맺기의 과정을 영상으로 시각화한 <연다. 관계 맺기> 권다예, 김경아, 김가빈, 성남의 랜드마크를 인터랙티브 아트로 재해석한 <업스케일링 성남 City by TRPG> 임주향가 창작랩과 미디어센터 공간 곳곳에 자리했다. 현장에서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오픈스튜디오는 창작랩이 예술가들의 기술 학습과 관계 형성이 실제 창작으로 이어지는 거점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의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학습하는 단계를 넘어, 창작자들이 서로의 질문을 나누고 실험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이러한 작은 실험들이 성남의 산업적 기반과 문화예술 인프라, 시민의 일상과 만나 확장될 때, 예술기술 융합은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는 새로운 창작 언어가 될 것이다.

### 배움에서 실험으로, 커뮤니티에서 생태계로

창작랩의 핵심은 창작자들이 스스로 모이고 배우고 실험하는 자율적인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뉴아트 클럽>은 기술 습득과 피어러닝(peer-learning)을 중심으로 한 스터디형 커뮤니티다. 올해에는 '필드 레코딩' 클럽장 구래연, '키네틱 스터디' 송효근, 'Vibe To Code' 유태양, '무빙 이미지 실험' 윤호현, 'TRPG 창작 워크숍' 이광현, '신시사이저 101' 추호승, '놀이와 매체 연구 클럽' 한광우 등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클럽들이 활동한다. 클럽장은 <업스케일링 성남> 1기 참여 작가와 1·2기 멘토들이 맡아, 지난해의 배움을 올해의 공유와 운영으로 연결한다. 각 클럽의 활동은 기술 습득을 넘어, 참여자의 감각과 관심사를 창작의 방식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도시의 소리,



기획자들의 이야기: 김도원·구래연

## 예술과 기술이 함께 자라는 창작의 실험실

예술과 기술의 만남은 더 이상 낯선  
실험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를 넘어, 그것을  
창작자의 언어로 어떻게 해석하고 확장해  
나가느냐다. 성남문화재단이 올해 새롭게  
조성한 <아트×테크 창작랩>은 예술가와  
기술 전문가, 시민이 함께 배우고 실험하며  
교류하는 창작의 거점이다. 이곳에서  
창작자들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서로의 자원이 되고, 지역 안에서 새로운  
예술기술 융합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창작랩을 함께 기획·운영하는 김도원·  
구래연 기획자를 만나 이 공간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물었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 기획자 김도원

예술기술 융합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기획자입니다. 2024년 성남문화재단의 <모든예술31>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 심층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원으로 참여해 창작자들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과 신규 사업 기획 연구를 담당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스케일링 성남> 사업 기획과 설계를 함께했습니다. 2025년 <업스케일링 성남> 1기 코디네이터로 활동했으며, 올해 <업스케일링 성남> 2기와 <아트x테크 창작랩>의 기획·운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올해 새롭게 마련된 <아트x테크 창작랩>은 어떤 공간인가요?

**김도원** 창작랩은 예술기술 융합에 관심이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융복합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공간입니다. 예술기술 분야 창작자들의 구심점이자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지난해 <업스케일링 성남> 1기에 참여한 작가들이 올해에는 이곳에서 <뉴아트 클럽>이라는 스터디 그룹을 이끌어 가고, 올해 <업스케일링 성남> 2기 참여 작가들과 교류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이고, 쉬고, 창작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셈이지요. 자연스러운 교류와 창작이 이뤄지는 영감의 샘터, 예술기술 발전소 같은 곳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래연** 창작랩은 단순히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예술가가 기술을 실험하고 자신의 언어로 소화해 가는 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예술기술 융합 창작자들을 위한 기존의 지원사업들이 결과 중심이었다면, 이 창작랩은 과정 중심으로 실험과 실패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도구'로만 보지 않고, 예술가의 사고방식 자체를 확장하는 '매개'로 다룬다는 점도 기존 지원사업과의 차별점입니다.

### <아트x테크 창작랩> 안에서 각각 맡고 계시는 프로그램과 운영 방향을 소개해 주세요.

**김도원** 제가 맡고 있는 <뉴아트 클럽>은 예술기술 융합에 관심 있는 창작자 중 초심자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스터디 그룹입니다. 현재 총 8개의 클럽이 개설되었고, <업스케일링 성남>의 1기 작가들과 1·2기 멘토들이 클럽장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아트 클럽>은 예술기술 융합 분야 입문자들에게 진입 기회를 열어 주는 동시에, <업스케일링 성남> 참여 작가들에게는 지속적인 창작과 성장, 지역 안에서 커뮤니티를 이어 갈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래연** 저는 앞으로 진행될 <기술 융합 실험실>과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아트 클럽>이 기술 습득과 학습 중심의 커뮤니티라면, <기술 융합 실험실>은 소규모 심화 창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험을 함께하는 참여자에 가까워요.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점은 지속 가능성과 자기 언어화,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자신의 작업 언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참여자들이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교육보다,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구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지난해 <업스케일링 성남> 1기 기획자와 참여 작가로 활동하신 경험이 <아트x테크 창작랩>을 기획·운영하시는데 어떤 바탕이 되었나요?

**김도원** <업스케일링 성남>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기획자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1기 참여 작가들이 서로 도와주고 배움을 주고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술기술 융합 창작자들에게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만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그 경험이 창작랩을 기획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창작자들이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창작을 이어 갈 수 있는 지속성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구래연** 다른 기관에도 비슷한 예술기술 융합 성장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업스케일링 성남>의 경우 같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작업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스케일링 성남> 1기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작가들을 알게 되어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동료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한 참여 작가로서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느꼈던 점과 동료 작가들과 나눴던 피드백을 올해에는 기획자로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기획자 구래연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 기술 사이의 다층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예술가입니다. 공간적 경험과 생태적 인식에 깊은 관심을 두고 설치, 사운드, 영상 참여형 워크숍 등을 통해 인간의 인식을 넘어 그 경계 안팎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역동성과 순환적 변화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사운드스케이프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감각과 인식의 방식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업스케일링 성남> 1기 참여 작가로 활동했으며, 올해에는 <아트x테크 창작랩>의 기획·운영과 <뉴아트 클럽> '필드 레코딩'의 클럽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기술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김도원** 열린 마음과 수용하는 태도, 도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에게 새로운 기술을 더해 자신의 작업을 확장하는 일은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작업에 조금씩 더해 보며 계속 실험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장비나 공간, 커뮤니티 네트워크, 멘토링 프로그램 등은 이미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곳에서 역량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래연** 여러 요소가 있지만 기술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시간과 구조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장비나 공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는 환경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 협업에서는 서로 다른 예술적·기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트x테크 창작랩>의 운영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변화가 있다면요?**

**김도원** 참여 작가들의 성장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업스케일링 성남>이 누군가에게는 '디자이너'에서 '작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뉴아트 클럽>을 통해 배우는 입장에서 다른 참여자를 이끄는 클럽장으로 성장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술기술 융합 스킬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량과 자신감, 자존감을 북돋아 주는 안전한 창작의 울타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구래연** 저 역시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에 부담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특정 장르 안에 한정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점차 기술을 자신의 작업 안으로 끌어들이고 서로 협업하면서 '뭔가 해 볼 수 있다'라는 자

간에 완성되기 어렵고 지속적인 실험과 수정이 필요한데, 지원 구조는 단기 프로젝트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적·예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3~5년 정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인력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구조가 아직은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해,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남의 예술기술 융합 창작 생태계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길 기대하시나요? 그 안에서 <아트x테크 창작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도원** 창작랩이 성남의 예술기술 융합 창작 생태계의 근원이자 발전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1단계로 <뉴아트 클럽>을 통해 예술기술 융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유입되고, 2단계로 <업스케일링 성남>을 통해 역량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 협업하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3단계로는 <기술 융합 실험실>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각각의 단기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작랩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구래연** 저 또한 창작랩이 예술과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는 구조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험이 축적되고 관계가 지속되며 작업이 확장됨으로써, 창작랩 자체가 예술기술 융합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특히 성남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작가들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성남만의 특징점을 가진 예술기술 융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자로서 계획과 각오를 들려주세요.**

**김도원** 프로그램의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참여자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움직이는 기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래연 기획자가 작가의 관점에서 질문과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고 있어서, 저는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는 만큼, 창작랩도 앞으로 더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구래연** 창작랩은 올해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아직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참여자의 변화와 현장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이 공간이 함께 실험하고 조정해 가는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쌓아가며, 창작랩이 자기만의 형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도 점차 서로 배우고 제안하는 동로적 관계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x테크 창작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김도원** 예술기술 융합의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만큼 창작자의 정체성도 다양합니다. 가상세계, 피지컬, 오디오 비주얼 등 다양한 세부 분야를 폭넓게 포괄하면서도 성남의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만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창작자들의 실제 수요와 행정적·요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 것인가 또한 운영 측면에서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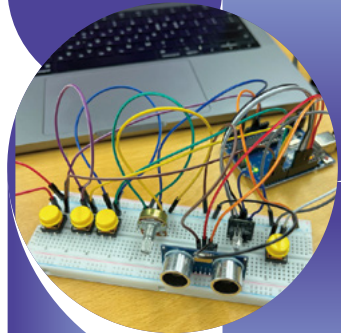
**구래연** 참여 작가이자 기획자로서 시간과 지속성의 문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작업은 단기

참여자들의 이야기: 뉴아트 클럽 소개하기

# 함께 배우며 확장하는 창작 커뮤니티

예술과 기술의 만남은 거창한 장비나 완성된 결과물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때로는 함께 듣고, 움직이고, 코드를 쓰고, 이미지를 다루고, 이야기를 만들며 서로의 방법을 나누는 작은 모임에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이 열린다. <아트×테크 창작랩>의 '뉴아트 클럽'은 바로 그런 실험을 위한 스터디형 커뮤니티다. 필드 레코딩부터 키네틱 아트, 바이브 코딩, 무빙 이미지, TRPG, 신시사이저, 놀이 창작까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7개의 클럽은 창작자들이 스스로 배우고 교류하며 예술기술 융합의 감각을 확장하는 장이 되고 있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 필드 레코딩

### 클럽장 구래연

도시 환경과 비인간 존재의 관계를 탐구하는 다원예술가로, 생태적 감각과 기술적 매개를 결합한 연구 기반의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리, 환경, 감각 구조 등의 비가시적 조건을 조사하고 이를 예술적 언어로 확장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뉴아트 클럽 활동 소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사용하는 장비와 접근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현장의 소리를 채집하는 필드 레코딩과 비가청 범위의 소리 실험을 통해 '듣는 행위' 자체를 다시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소리란 무엇인가'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질문하며 감각적 듣기를 실천하고, 각자가 채집해 온 소리를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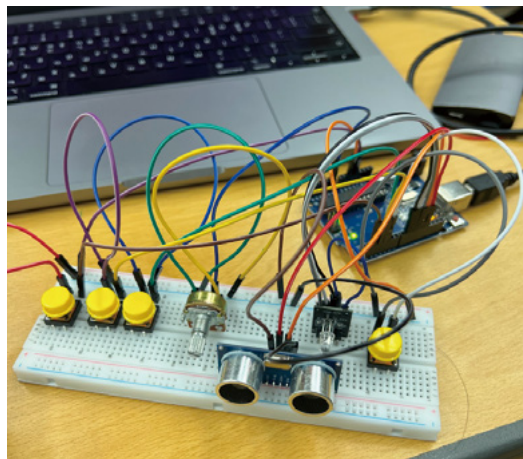
탕으로 그 장소와 시간, 맥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필드 레코딩 장비의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다양한 장소에서 소리를 채집해 보는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

스터디 구성원을 모집하는 신청서 양식에 모두 필드 레코딩 경험이 없다고 기재해 주셨지만, 실제로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분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소리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없어도 휴대폰을 활용해 각자의 방식으로 소리를 채집하고 있었고, 삶의 여러 장면에 귀 기울이는 감각을 이미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아트×테크 창작랩>과 뉴아트 클럽을 통해 기대하는 점

다양한 주제의 클럽들이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관심을 가진 참여자들이 뉴아트 클럽을 통해 서로 배우고 교류하며 영감을 주고받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뉴아트 클럽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와 흐름이 서로에게 시너지를 일으키고, 각자의 창작 세계를 넓혀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뉴아트 클럽 활동 소개

'키네틱 스터디'는 실제 환경에서 작품에 어떠한 움직임을 부여하고, 그 움직임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함께 나눕니다. 기초 단계의 기계 메커니즘과 작동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나아가 간단한 설계 방법론을 함께 연구하며 참여자들이 기본적인 움직임을 스스로 만들고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주로 진행합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

<업스케일링 성남> 1·2기에 모두 참여한 이력이 있어, 기술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구성원을 <업스케일링 성남> 1·2기 참여자만으로 구성해 비슷한 관심사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터디 이후에도 각자의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아트x테크 창작랩>과 뉴아트 클럽을 통해 기대하는 점

<아트x테크 창작랩>과 뉴아트 클럽은 정규 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지역 예술가들이 예술기술 융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커뮤니티를 이어 나가며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 키네틱 스터디



### 클럽장 송효근

'움직임'을 포함한 키네틱 설치, 키네틱 오브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업스케일링 성남> 1기에 참여해 키네틱 아트에 대한 개인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정기 모임을 운영하며 참여 작가들과 상호 인사이트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업스케일링 성남> 2기의 피지컬 미디어 분야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 Vibe To Code



### 클럽장 유태양

주로 XR(Extended Media) 분야에서 테크니컬 디렉터이자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 미디어 아트 현장에서 기술이 작품 안에 들어가는 방식과 창작자가 새로운 도구를 자기 언어로 다루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업스케일링 성남> 1·2기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뉴아트 클럽 활동 소개

'Vibe To Code' 클럽은 앤트로픽(Anthropic)사의 클로드(Claude) AI 모델을 활용한 바이브 코딩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코드를 작성하는 '바이브 코딩'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코딩 없이 무언가를 빨리 만드는 일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방식을 각자의 창작 언어로 전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주 동안 참여자들은 클로드 코드를 터미널에서 사용해 보고, 자신의 취향과 작업 규칙을 문서로 정리해 간단한 웹 프로토타입이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양한 도구를 연결해, 단일 결과물보다 다음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 창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

초반에는 대부분 AI와 채팅하는 방식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실제 파일을 만들거나 고치고, 폴더 구조를 이해하고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연결하는 방식을 낯설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내 작업에 도움이 될지, 다른 사람과 함께 쓰려면 어떤 구조가 더 필요할지 고민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 <아트x테크 창작랩>과 뉴아트 클럽을 통해 기대하는 점

특정 기술을 배우는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작가가 자신이 가진 주제와 문제를 바로 펼쳐 놓고 함께 실험할 수 있는 자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자칫 기술 자체를 중심에 두기 쉽고, 반대로 비개발자 창작자들은 기술을 저 멀리 있는 전문 영역으로 느끼게 됩니다. 뉴아트 클럽은 그 사이에서 서로의 언어를 번역하고, 작은 프로토타입을 함께 만들어 보며, 각자의 작업 방식 안에 기술을 들여놓는 중간 지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무빙 이미지 실험

### 클럽장 윤호현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모션 그래픽을 중심으로 뮤직비디오와 브랜드 영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이미지와 구조 그리고 시스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적 관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 뉴아트 클럽 활동 소개

‘무빙 이미지 실험’은 각자의 취향과 관심을 움직임으로 번역해 보는 과정 중심의 워크숍입니다. 참여자들은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한 뒤, 이를 구조와 움직임으로 전환해 어도비 Adobe사의 애프터 이펙트 After Effects로 짧은 루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를 단순한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와 시간성을 지닌 매체로 다시 읽고,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임을 구성하는 실험을 경험했습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

참여자들끼리 서로의 작업을 매개로 사유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각자의 취향을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 이미지에 끌리는지’ ‘이 감각을 어떻게 움직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또한 특정 표현 방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레퍼런스를 공유하거나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각자의 사고방식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동했습니다.

### <아트x테크 창작랩>과 뉴아트 클럽을 통해 기대하는 점

참여자들의 취향과 관심이 새로운 작업의 연장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미지를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내재한 구조와 움직임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읽어 내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유해 보는 경험은 이후 또 다른 작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무빙 이미지 실험’이 서로의 작업 방식을 열어 두고, 감각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열린 연결의 형태로 확장되길 희망합니다.



## # TRPG 창작 워크숍

### 클럽장 이광현

파프리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관객의 경험을 설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함께 행위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관객을 관람자가 아닌 공동 저자이자 동료 플레이어로 초대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 뉴아트 클럽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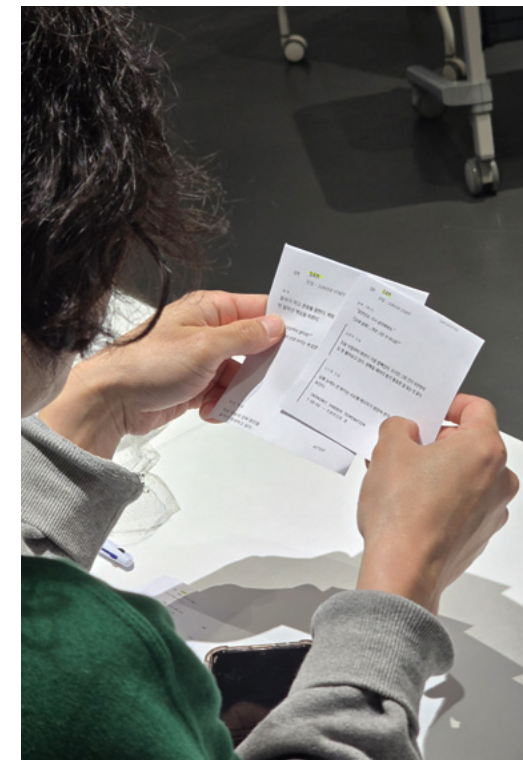
‘TRPG 창작 워크숍’은 ‘게임을 플레이하고, 분석하고, 직접 만든다’라는 흐름으로 운영된 4회 차 프로그램입니다. TRPG는 참여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행동하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게임입니다. 워크숍은 TRPG를 직접 플레이해 보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캐릭터의 역할과 욕망, 비밀을 설계하고, 마지막에는 세 팀이 각자의 TRPG를 만들어 서로 플레이하며 TRPG를 ‘행위성을 재료로 삼는 예술’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카드덱, GM용 웹 도구, 캐릭터 시트 등 실제 제작 도구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

워크숍 내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이어 가던 오래된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이야기에 옆 사람이 덧붙이고, 듣는 이의 반응에 따라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서로를 캐릭터 이름으로 부르고, 카드 몇 장을 던져 삼아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도 각자의 선택을 되짚는 대화가 한참 이어졌고,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 가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 <아트x테크 창작랩>과 뉴아트 클럽을 통해 기대하는 점

알고리즘이 취향을 먼저 제안하는 시대일수록, 낯선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함께 무언가를 시도하는 시간은 더욱 귀해지고 있습니다. <아트x테크 창작랩>이 기술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로 실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은 관객에서 저자로, 다시 서로의 플레이어로 이동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감각이 TRPG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영상, 설치, 퍼포먼스 작업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 신시사이저101

## 클럽장 추호승

사운드와 비주얼의 결합을 통한 오디오 비주얼 작업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업스케일링 성남> 1기에 참여하며 성남 지역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개인 작업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 뉴아트 클럽 활동 소개

'신시사이저를 기반으로 한 앰비언트 음악의 정수를 탐구하고 감상하며, 나아가 직접 창작하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시대 별 앰비언트 음악의 흐름을 짚어 보고, 그 제작 방식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이를 VCV Rack을 활용한 개인의 신시사이저 작업에 적용해 보는 것은 물론,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제너레이티브 뮤직(Generative Music)의 원리를 결합해 자신만

의 무한한 사운드 환경을 구축하는 법을 모색합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

일반적인 강의 환경에서는 질문이 적거나 개인적인 문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뉴아트 클럽에서는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 있는 작가들이 모인 만큼, 활발하고 깊이 있는 담론이 오가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적극적인 참여 모습이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 <아트x테크 창작랩>과 뉴아트 클럽을 통해 기대하는 점

참여자들이 신시사이저와 앰비언트 음악에 대한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각자의 고유한 작업 방식 안에서 소리와 기술을 새롭게 실험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커뮤니티가 서로의 경험과 방법론을 공유하며 예술과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창작의 요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 # 놀이와 매체 연구 클럽

## 클럽장 한광우

조각을 전공하고 미술교육과 예술학을 공부하며, 실기와 이론을 함께 탐구해 온 작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색의 운동회> 연작에서는 신체 감상을 바탕으로 관객의 참여와 동적 사색, '놀이'적 창작 방식을 결합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뉴아트 클럽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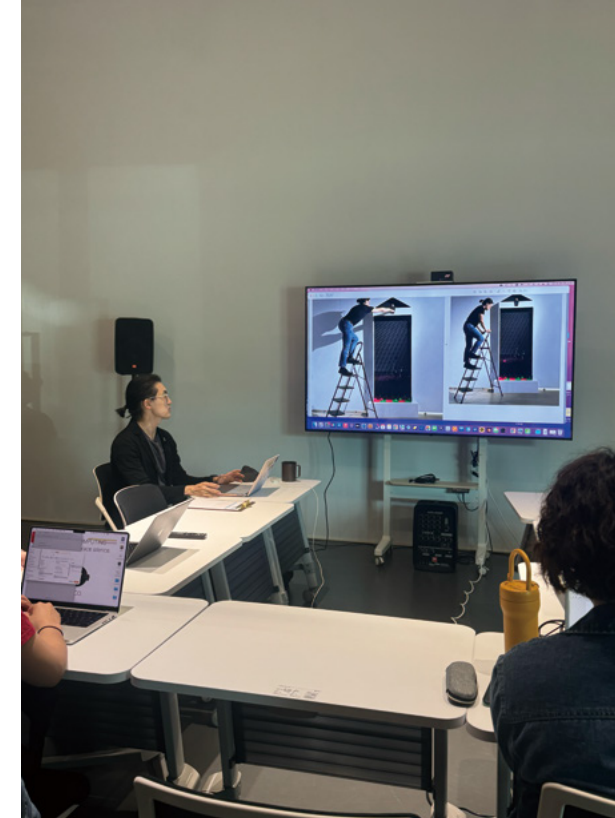
놀이와 매체 연구 클럽은 참여자들이 직접 놀이를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놀이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놀이의 범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어떤 조건에서 진정한 의미의 '놀이'가 성립하는지 탐구합니다. 또한 놀이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다른 것으로 변질되는 사례까지 살펴 보며, 놀이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경쟁, 우연, 가면, 현기증이라는 네 가지 놀이의 범주에 맞춰 직접 놀이를 구성합니다. 간단한 재료로 참여를 위한 오브제를 만들고, 참여 규칙을 설계한 뒤 서로의 놀이를 관객의 입장에서 경험하며 그 안에 담긴 예술적 의미와 창작의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 합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

아직 초반 단계이지만, '놀이'가 단순하고 즉각적인 감각적 행위를 넘어 예술 창작의 원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작업이나 일상적 행위 속에서도 놀이적 태도, 혹은 놀이가 변질되는 순간을 떠올리며 이를 창작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로 삼던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 <아트x테크 창작랩>과 뉴아트 클럽을 통해 기대하는 점

놀이 이론은 예술가에게 창작의 원리와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럽 구성원 대부분이 현업 미술작가나 기획자 등 예술 관련 종사자인 만큼, '놀이'에 대한 탐구가 각자의 작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아가 삶을 보다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놀이는 창작을 위한 도구를 넘어, 예술과 삶의 태도를 다시 사유하게 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스케일링 성남> 2기 워크숍 현장

예술기술 융합의 현재와 미래

# 회색이 되지 않는 융합 - 협업의 기예에 관하여

전지한 장이 벽에 붙어 있었다. 매트릭스Matrix가 그려진 종이 위에 열다섯 개의 화살표가 얹혀 있었고, 한 사람이 그 앞에 오래 서서 자기 화살표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다른 사람의 화살표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과 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날의 출발점이었다. 성남문화재단의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 <업스케일링 성남>의 워크숍, 그 두 번째 자리에서였다.

글 장석류 국립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2001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광장에서 펼쳐진 라파엘 로자노-헤머의 인터랙티브 작품 <Body Movies>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단순하지 않았다. 매체가 달랐고, 기술을 다루는 태도가 달랐고, 작업이 시작된 자리도 달랐다. 그럼에도 그날 모인 열다섯 명의 의도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인터랙티브. 지난해와 올해 <업스케일링 성남>에서 만난 동시대 작가들의 작업은 매체와 장르가 달랐음에도 결국 같은 자리를 향해 있었다.

### 인터랙티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인터랙티브 예술이란 무엇인가. 매체학자 레프 마노비치는 일찍이 새로운 미디어의 본질을 '가변성(variability)'에서 찾았다. 작품은 한번 만들어져 고정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무한히 다른 버전으로 존재한다. 인터랙티브 예술은 이 가변성을 자기 매체의 본질로 끌어안은 예술이다. 작품은 작가의 손에서 완성되지 않고, 관객의 움직임과 시선, 호흡을 만나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멕시코계 캐나다인 미디어 아티스트 라파엘 로자노-헤머가 2001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한 광장에 거대한 스크린을 세웠다. 작품의 이름은 <Body Movies>. 사람들이 광장을 가로지르면 그 그림자가 스크린 위에 거대하게 비쳤고, 오직 그 그림자 안에서만 미리 촬영된 천여 명의 거리 초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행인이 멈추면 초상이 머물렀고, 움직이면 초상도 따라 움직였다. 작품은 행인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았다. 한 인터뷰에서 로자노-헤머는 자신의 관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관객은 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는 서로에게 주는 거지요."

이 한 문장이 인터랙티브 예술의 진짜 자리를 짚어 준다. 작품의 수신자는 작가가 아니다. 옆에 선 다른 관객이다. 한국 작가 김아영의 작업도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그가 2022년 발표한 <딜리버리 댄서의 구>는 인공지능과 게임 엔진, 라이다 스캔으로 직조된 영상 작품이다. 이 작업으로 2023년 미디어 아트의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 프리 아스 일렉트로 니카에서 한국인 최초로 골든 니카를 받았고, 2025년에는 한국 작가 최초로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다. 심사단은 그의 작업을 두고 "기술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독창적 관점을 제시한다"라고 평했다. 김아영은 2016년부터 안무가, 음악가, 배우, 성우, 이론가들과 협업하면서 작업을 확장해 왔다. 첨단 기술이 그의 매체이지만, 그 매체가 가닿는 자리는 결국 인간이다.

성남에서 만난 작가들의 의도도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일상의 사소한 제스처, 이를테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는 동

작을 감각의 트리거로 바꾸고자 했고, 누군가는 관객이 들어와 누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작품으로 설계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술을 부른 자리는, 사람의 사소한 동작과 깊은 정서를 다시 만나게 하는 자리였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터랙티브가 의미를 갖는 자리는 한 곳뿐이다. 기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자리다.

### 예술과 기술의 만남, 그리고 산업의 예술화

예술과 기술의 만남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이 만남의 출발점에 백남준이 있다. 1984년 새해 첫날, 그는 위성을 통해 뉴욕과 파리를 한 무대로 묶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었다. 당시 위성 방송망은 군사와 통신을 위해 깔린 산업 인프라였다. 백남준은 그 인프라를 끌어와 예술의 무대로 삼았다. 그리고 그 작업은 엔지니어들과의 협업의 산물이었다. 한국에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은 백남준 이후 이어져 온 오래된 미래다.

다시 마노비치를 빌리자면, 그는 새로운 미디어의 또 하나의 원리를 트랜스코딩(transcoding)이라 불렀다. 컴퓨터의 논리가 문화 안으로 스며들고, 문화의 논리가 다시 컴퓨터의 언어로 환원되는 상호 변환의 흐름. 백남준의 시대에 이 흐름은 한 방향이었다. 예술가가 산업의 인프라를 끌어와 예술의 매체로 삼는 흐름. 그러나 지금, 흐름은 양방향으로 되었다. 산업이 예술의 감각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강이연 작가의 <Passage of Water>가 그 한 예다. 두바이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자리에서 그는 구글, 나사(NASA)와 협업한 인터랙티브 작품을 선보였다. 나사가 독점 제공한 위성 데이터가 작품의 재료였고, 관객은 빗물 모으기와 해수 담수화를 게임 형식으로 직접 체험했다. 작가가 산업·과학 기관의 데이터를 끌어와 작품의 매체로 삼는 자리. 백남준이 했던 일이 동시대에 다시, 그러나 더 깊게 일어나고 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예술가가 다루어 온 인터랙티브의 언어, 곧 관객의 반응을 읽고, 감각을 확장하고, 공간을 다감각적 환경으로 설계하는 일이 더 이상 예술계 내부의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동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의 분위기 설계, 가전제품의 촉각적 반응, 도시의 야간 경관. 이 모든 자리에서 예술가가 다루어 온 감각의 문법이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되어 가고 있다. 산업의 예술화. 이것이 지

금의 흐름이다.

성남 워크숍에서 만난 작가들의 작업은 이 흐름 위에서 다양한 기술적 모서리로 분화되어 있었다. 어떤 작가는 코드와 알고리즘으로 시스템을 직조했고, 어떤 작가는 모터와 센서를 직접 조립해 물체에 움직임을 부여했으며, 또 다른 작가는 공간 전체를 캔버스 삼아 관객의 동선을 설계하고 있었다. 같은 인터랙티브를 향하면서도, 끌어 쓰는 기술의 결은 모두 달랐다. 재료로서의 기술과 도구로서의 기술, 디지털과 물리 세계 사이의 왕복은 동시대 예술가에게 이미 일상이 되었다. 여기에 인공지능은 이 왕복의 속도를 올린다. 동시에 새로운 협업의 짝을 추가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협업에 더해, 인간과 기계 사이의 협업. 흐름은 더 빨라지고, 다루어야 할 매체는 더 다양해지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좁아진다. 그래서 협업이다.

### 협력과 협업의 기예

한국의 예술기술 융합 사업이 자주 반복하는 패턴이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알아서 협업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협력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저서 『좋은 조직문화란 무엇인가』를 쓰면서 부산 영도 문화도시센터의 한 크루를 만난 적이 있다. 그가 한 말이 오래 남았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하지? 싶었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서 같등까지 풀리는 경험을 했어요." 협업은 그 의문이 풀리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매칭의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게임 엔진, 라이다 스캔 등으로 제작한 김아영 작가의 <딜리버리 댄서의 구>의 한 장면

Ayoung Kim, <Delivery Dancer's Sphere>, single-channel video, 25min, 2022

함께 일한다는 것의 본뜻을 한자(漢字)에서 다시 묻고 싶다. 협(協)이라는 글자에는 하나의 중심점을 뜻하는 열 십(十)과 여러 힘을 뜻하는 힘력(力) 셋이 함께 놓여 있다. 즉 협(協)이란 서로 다른 여럿의 힘이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정렬되는 구조다. 중심점 없는 모임은 단순한 집합에 그치고, 다양성 없는 모임은 동일성의 반복에 불과하다. 협력(協力)이 각자의 힘을 보태는 단계라면, 협업(協業)은 서로의 전문성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단계다. 협력 없이 협업은 없다.

영국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의 책 『Together』<sup>2012</sup>는 한 권 전체가 이 명제로 짜여 있다. 협력은 좋은 마음이나 공유된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이 필요한 기예(craft)이다. 그가 보기에 협력은 듣고, 응답하고, 다시 듣는 반복적 훈련을 통해 몸에 새겨지는 기술이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의 진단은 한국의 예술기술 융합 현장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그 기예는 누가,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성남 워크숍에서 우리가 시도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열다섯 명의 작가가 자기 작업의 좌표를 같은 매트릭스 위에 표시했다. 매체의 형태와 기술을 대하는 태도라는 두 축이 만드는 사분면. 이름과 작품 제목 대신 좌표가 먼저 깔리자, 서로 다른 분야의 작가들이 처음으로 같은 언어로 자기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자리에서는 그 좌표 위에 벡터를 그었다.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은가를 묻고 정반대 방향에 화살표를 그은 사람을 찾는 대척점 매칭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결핍은 부끄러운 빈칸이 아니라, 동료의 강점과 결합할 완벽한 소켓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도구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일하던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자기를 말하게 만드는 단계적 장치였다.

이런 협업의 양식이 한국에서 작동한 사례가 이미 있다. 작가 권병준은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로 시작해 네덜란드의 전자악기 연구개발 기관 STEIM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다. 그의 작업은, 음악과 연극과 미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품의 핵심 매체인 소리를 다른 분야 사람들과의 협업으로 직조한다. 2020년 결성된 '디지털 사일런스'는 뉴미디어 작가, 전파공학자, 시각예술 이론가가 함께 일하는 장기 협업 컨소시엄이다. 일본의 팀랩이 자기 그룹을 울트라테크놀로지스트라 부르며 작가·프로그래머·엔지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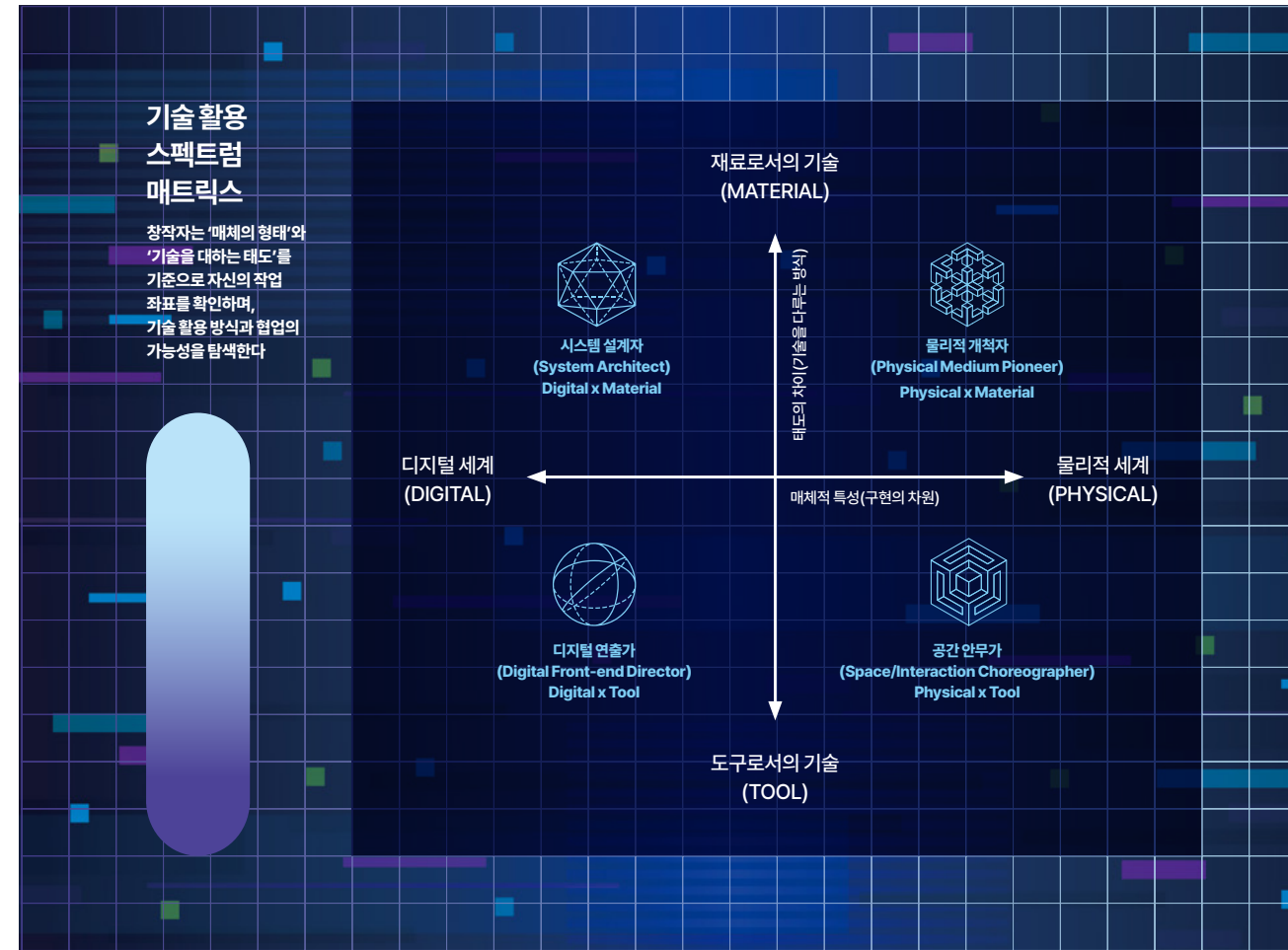
·수학자·건축가가 한 작품의 공저자가 되는 양식을 표준으로 만들었다면, 한국에서도 같은 양식이 작가 한 명의 작업에서, 또 장기 컨소시엄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업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학습되고 설계되는 기예다.

### 행정이 답해야 할 다음 질문

예술기술 융합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 흐름을 받아 내는 행정의 자리도 새로 그려져야 한다. 산업이 예술의 감각을 배우러 오는 시대에 예술기술 융합 지원사업은 더 이상 예술계 내부의 작은 실험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감각의 시대로 이행하는 길목에서 함께 키워야 할 자원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하는가. 세 가지 전환을 떠올린다.

첫째, 결과물 중심에서 협업 매칭의 깊이로 평가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 협업이 기예라면, 평가의 자리는 그 기예가 얼마나 깊이 학습되었는지를 묻는 자리로 옮겨 가야 한다. 누가 누구를 만났고, 그 만남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길어 올렸는지를 물어야 한다. 둘째, 한 명의 육각형 인재에서 서로 다른 모서리들의 별자리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능력을 두루 갖춘 한 사람보다, 자기 모서리를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결핍을 소켓으로 받아 주는 별자리를 키워야 한다. 셋째, 작품 완성도에서 피어러닝의 두께를 살피야 한다. 한 작품의 완성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동료가 서로에게서 배웠는가다. 결과는 한 번이지만, 학습은 다음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 세 전환은 한 가지 원리의 변주다. 결과를 서두르지 말고 과정에 투자하라.

여기에 한 가지 경계의 지점을 더해야 한다. 영국의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은 참여(participation)와 협업(collaboration)을 구분하면서, 참여자는 작가가 정한 매개변수를 따르지만 협업자는 저작권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숍은 일찍이 경고했다. "참여는 이미 스펙터클과 합쳐졌다." 인터랙티브 예술이 자칫 거대 체험형 콘텐츠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의 예술기술 융합 지원사업도 이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자원이 가야 할 자리는 작가-관객 인터랙티브의 외형보다 창작자-창작자 협업의 내실이다. 화려한 스펙터클을 빠르게 키우는 길보다, 협업의 기예를 천천히 학습할 자리를 만드는 일이 먼저다.



성남문화재단이 <업스케일링 성남>에서 <아트×테크 창작 랩>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변화가 보인다. 결과물보다 관계의 두께에 먼저 투자하는 흐름이다. 작가들이 서로를 알아 가고, 자기 좌표를 다른 사람의 좌표 옆에 놓아 보고, 결핍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소켓으로 다시 읽는 자리. 이런 시도가 한국의 다른 지역과 기관으로 번질 수 있다면, 한국 예술기술 융합의 지형도가 한 단계 다르게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이 답해야 할 다음 질문은 한 가지다. 우리는 별자리를 키우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점들을 모아 놓고 그것이 그림이 되기를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는가. 회색이 되지 않는 융합. 이 한 줄에서 시작했다. 흑과 백이 섞

여 회색이 되는 자리에서는 좋은 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흑대로, 백은 백대로 자기 결을 지킨 채 한 점시 위에서 극적인 대비와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융합이다. 예술가는 자기 작업의 한 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하는 방향을 가진 사람이다. 융합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들의 만남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 기술이 아무리 빨라져도,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 협업은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기예이며, 좋은 마음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학습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솜씨다. 우리가 함께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면, 그 학습의 자리를 먼저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MODELS, MUSICIANS, MOROCCO, MAGIC, MAUVE,  
MONSTERS AND MAGENTA

**KATHERINE BERNHARDT**

2026. 부터 **07.03** 까지 2026. **09.06**

**캐서린 번하드 특별전**

2026.07.03 - 09.06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모델, 뮤지션, 모로코, 마법, 연보라, 리물 그리고 빨강

Katherine Bernhardt, Tub Time, 2023 © Katherine Bernhardt, Courtesy the artist and David Zwirner



# VIEW

성남아트센터의 안목으로 큐레이션한 공연과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향기를 불어넣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34** 미리보기1  
오페라 정원 <피가로의 결혼>

**38** 미리보기2  
오페라 정원 <바람의 노래>

**40** 미리보기3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42** 미리보기4  
2026 발레 스타즈

**44** 미리보기5  
2026 여름특별기획전 <캐서린 번하드 특별전>

**48** 미리보기6  
2026 성남작가조명전프 김홍년 <꿈의 대화: Dreams in Dialogue>

**50** 인터뷰  
<오후의 콘서트> 진행자,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54** 깊이보기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프 브라질 보사노바

오페라정원 <피가로의 결혼>

# 풍자와 유머로 엮어 낸 발칙한 결혼 대소동

성남문화재단이 2026년 '오페라정원'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선보인다. 2020년과 2021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오페라정원'은 무대 장치와 의상을 간소화하는 대신 음악과 드라마의 본질에 집중한 콘서트 오페라 시리즈다. 출연자들이 지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작곡가가 악보에 심어 놓은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선과 밀도 높은 사운드를 한층 생생하게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젊고 유능한 성악기들을 발굴해 무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오페라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선례를 남겼다.

글 유윤중 음악 칼럼니스트



<피가로의 결혼><sup>1786</sup>은 <돈 조반니> <마술피리>와 함께 모차르트의 오페라 목록 중에서도 가장 앞줄에 놓이는 작품이자 18세기 유럽 지성사가 도달한 가장 높은 예술적 결실 중 하나로 꼽히는 걸작이다. 오늘날 오페라 무대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는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이 오페라는 당대 유럽 사회의 모순에 대한 따끔한 풍자와 함께 시대를 관통하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기도 하다. 신분과 계급의 갈등이 용서와 사랑의 화합으로 수렴되는 결말은 갈등과 폭력이 만연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3막에서 수잔나와 백작부인이 부르는 '편지의 이중창'은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삭막한 교도소를 자유의 선율로 가득 채운 그 노래다. 그 외에도 피가로의 아리아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케루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등 수많은 명선율이 여러 광고와 영화, 드라마를 수놓고 있으며 이 오페라의 서곡도 영화 <킹스 스피치>를 비롯한 여러 대중문화 속에 중요한 밈<sup>meme</sup>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차르트가 이 오페라를 쓰기 2년 앞서 1784년 파리에서 초연된 보마르세의 희곡 <피가로의 결혼>은 당시 프랑스 사회를 지탱하던 구체제(앙시앵 레짐)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작품이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하인이 주인을 조롱하는 모습을 당당히 표현했고 귀족의 부도덕함을 고발했다. 결국 이 연극은 5년 뒤 터지는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도화선 역할을 했다. 나폴레옹이 이 작품을 두고 "이미 일어난 혁명"이라고 평한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이번 공연은 특히 한국 오케스트라 지휘 무대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젊은 거장 홍석원과 섬세한 감각의 엄숙정 연출가, 국내외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한 주역 성악가들로 더욱 시선을 모은다.

홍석원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티를 주립극장 수석지휘자로 일하며 유럽에서 먼저 역량을 인정받은 지휘자다. 카라얀 탄생 100주년 기념 지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특히 모차르트 작품의 해석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무대에서도 모차르트 오페라가 요구하는 투명한 질감과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템포 및 강약 설정을 통해 환경아르떼 필하모닉과 함께 최고의 밑받침이 되어 줄 것이다.

오페라의 고향 이탈리아에서 연출을 연마한 엄숙정은 작품의 고전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감각의 소통을 가미하

는 데 능하다고 평가받는 연출가다. 원어인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관객에게도 음악적 호흡과 연기만으로 충분히 극에 숨은 진실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인물 간의 뒤얽힌 관계를 한결 명료하게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틀 롤이자 이 오페라의 중심인 피가로 역을 맡은 바리톤 김종표는 유연한 음색과 탁월한 극적 표현으로 정평이 나 있다. 활기차고 기지 넘치는 '서민의 영웅' 피가로에 필요한 인간의 불안, 따뜻함까지 다양한 감정선을 세밀하게 표현할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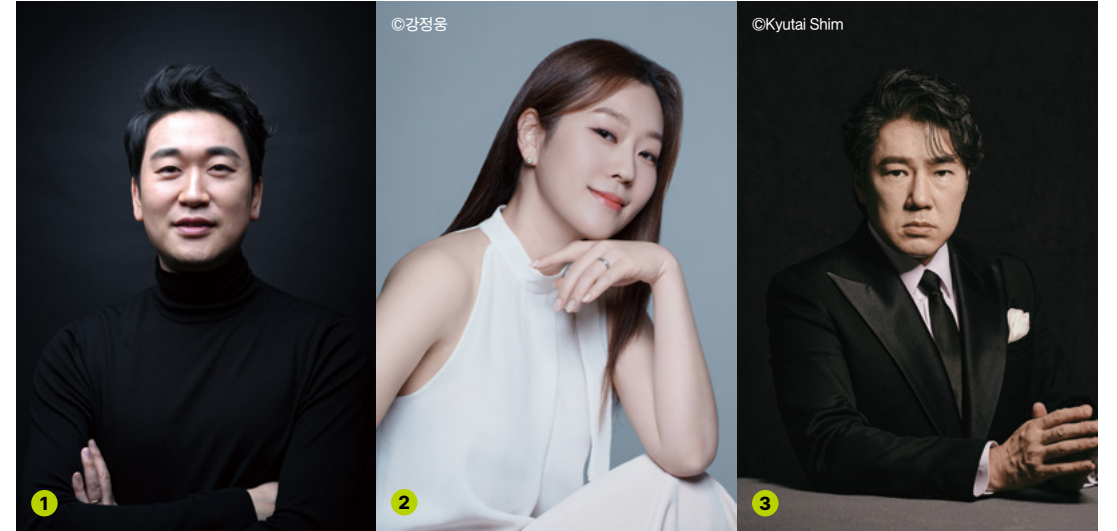
피가로의 신부인 수잔나 역의 소프라노 박소영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모차르트 <마술피리> 밤의 여왕 역으로 출연하는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기량을 입증해 왔다. 수잔나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생기 넘치는 캐릭터다. 박소영의 밝고 명징한 음색이 배역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기대할 만하다.

알마비바 백작 역의 바리톤 강형규는 경희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무대에 출연해 친숙한 얼굴이다. 베로나 야외 오페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등에서 주역으로 활약한 만큼 권위적이면서 욕망에 솔직한 인물 알마비바의 극적 무게를 실감나게 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심 속에서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백작부인 역은 소프라노 김은희가 맡는다. 국내 오페라 무대에서 쌓아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매력적인 서정적인 감성과 안정적인 고음역을 펼쳐 보일 것이다.

'바지 역할'인 사춘기 열정소년 케루비노는 메조소프라노 김정미가 맡았다. 라우리 볼피 콩쿠르 특별상, 제네바 국제 콩쿠르 2위 등 여러 콩쿠르에서 빛나는 성적을 거뒀으며 해외 활동 시절 이미 <피가로의 결혼> 케루비노 역을 포함한 여러 모차르트 오페라에 출연했다. 사랑의 설렘과 혼돈을 터져 나갈 듯 표현하는 케루비노에 그의 따뜻하고 유연한 음색은 적역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했듯이 이번 공연은 지휘자 홍석원의 투명하고 정교한 해석과 엄숙정 연출가의 섬세한 터치, 검증된 성악가들의 완숙한 가창으로 잊지 못할 초여름 저녁을 선사할 것이다. 백작 저택 정원에서 숨바꼭질이 펼쳐지는 이 오페라의 4막도 아마 대기에 달큰한 꽃향기가 퍼지는 늦봄 또는 초여름의 저녁이 배경이었을 것이다. 6월 5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 울려 퍼질 모차르트의 섬세한 선율이 인간의 내면세계를 정묘하게 파헤치는 마법의 시간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



이 오페라는 당대 유럽 사회의 모순에 대한 따끔한 풍자와 함께 시대를 관통하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기도 하다. 신분과 계급의 갈등이 용서와 사랑의 화합으로 수렴되는 결말은 갈등과 폭력이 만연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 1. 피가로 역 바리톤 김종표
- 2. 수잔나 역 소프라노 박소영
- 3. 알마비바 백작 역 바리톤 강형규
- 4. 백작부인 역 소프라노 김은희
- 5. 케루비노 역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오페라 정원 <피가로의 결혼>**

일시 6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오페라 정원 <바람의 노래>

# 다시 불어온 위로와 희망의 바람

지난해 성남문화재단이 창작오페라로 선보인 <바람의 노래>가 올해 콘서트 오페라 시리즈 '오페라 정원'의 세 번째 작품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작곡가 박태현의 동요 선율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과 희망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린다. 특히 올해에는 음악과 연기에 더욱 집중한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감성으로 관객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2025년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공연의 한 장면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불러 보았을 동요 선율이 다시 오페라 무대 위에 울려 퍼진다. 오페라 <바람의 노래>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는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말과 우리글,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지켜 온 작곡가 박태현<sup>1907~1993</sup>의 음악을 모티브로 삼은 창작오페라다. 작곡가 박태현은 '코끼리 아저씨' '산바람 강바람' '태극기' 등 200여 곡의 동요와 '3·1절 노래' '한글날 노래' 등 국가 기념일 노래를 남겼다. 1980년대 초 성남에 정착해 작곡할 때까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KBS 동요대상<sup>1989</sup>을 수상하고 작고 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sup>2002</sup>에 추서된 근현대 문화예술계의 거목이다.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는 작곡가 김주원이 박태현의 동요 선율을 현대적 음악어법으로 해석하고, 극작가 황정은이 전쟁의 상흔 속에서 피어나는 자연과 생명, 우정과 희망을 섬세한 문체로 담아낸 작품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산골 마을 빈집에 사는 소녀 '강바람'과 인형 '달'이 바람과 동물, 자연 속 존재들과 만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엄마를 기다리는 소녀의 노래는 바람을 타고 퍼져 나가고, 숨 쉴 곳을 잃은 존재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과 다시 살아가려는 힘이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

지난해에는 창작오페라의 규모와 무대적 상상력을 통해 작품 속 세계를 펼쳐 보였다면, 올해에는 콘서트 오페라로 음악과 연기의 밀도를 더욱 선명하게 전한다. 작품 곳곳에는 박태현의 동요 '산바람 강바람' '깊은 밤에 자장가' '다 같이 노래 부르자' 등이 원곡 그대로 사용되거나 주요 선율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창작되어 흐른다. 익숙한 동요의 멜로디는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음악으로 확장되고, 관객은 음악과 인물의 감정에 한층 깊이 귀 기울이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창작오페라의 재공연을 넘어 지역 예술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는 무대라는 데에 의미를 더한다. 재단은 지역 예술가들의 무대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성남 지역 성악가를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 개최, 소프라노 허희경을 '바람/엄마'役に 최종 선발했다. 성남을 대표하는 작곡가가 남긴 음악 유산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 예술가에 의해 다시금 꽃을 피우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군인 '최범석'역은 지난해 안정적인 발성으로 극에 목격한 감동을 더한 베이스바리톤 우경식이 다시 맡고, '달'역에 테너 이명현, '강바람'역에는 소프라노 박하나가 새롭게 참여한다. 여기에 지난해 초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한국 오페라계의 명장 김덕기 지휘자와 창의적인 해석으로 주목받는 조은비 연출가가 다시 합류해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

창작오페라에서 콘서트 오페라로 다시 돌아온 <바람의 노래>. 살랑이는 바람에 실려 온 잔잔한 선율이 모두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노래로 남기를 기대한다.

**오페라 정원 <바람의 노래>**  
일시 7월 11일(토) 오후 5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 달빛 아래 깨어난 순백과 어둠의 몸짓

달빛 아래 순백의 날갯짓으로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훔친 공연이 있다.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다.  
솔한 버전이 있지만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빛어낸  
국립발레단 공연은 고전의 틀을 빌려 인물의 내면을  
파고드는 심리극으로 이름이 높다.

글 윤대성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 사진 제공 국립발레단

줄거리는 익히 알려진 고전의 문법을 따른다. 성년식을 맞은 지그프리트 왕자가 우연히 호숫가에서 악마의 마법에 걸린 백조 오테트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악마 로트바르트의 계략과 흑조 오딜의 유혹에 넘어가 약속을 어기게 된다는 하룻밤의 환상담이다. 그러나 그리고로비치는 이 익숙한 내러티브 아래 심리적 장치를 숨겨 뒀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한 인격 내부에 공존하는 선악의 균열을 다루듯, 이 작품 역시 인물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을 내면화한다. 본래 거대한 올빼미 형상을 한 숲의 괴물이었던 로트바르트는 그리고로비치의 손에서 왕자 내면의 어둠이 투영된 ‘악의 정령 Evil Genius’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는 지그프리트의 그림자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또 다른 자아이다. 즉, 무대 위 갈등의 실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왕자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인 셈이다. 실제로 그리고로비치는 1975년 ‘뉴욕커’와의 인터뷰에서 “남성 무용수에게 발레리나와 대등한 비중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안무를 상당 부분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시선의 변화는 지그프리트의 캐릭터를 호기롭게 숲을 누비는 주체에서 운명에 휘둘리는 수동적 인물로 바꿔 놓는다. 클래식 발레에서 보기 드문 ‘남성 듀엣’도 이러한 해석에서 탄생했다. 1막 2장, 일명 ‘그림자 춤’에서 왕자는 그의 동작을 조종하듯 겹쳐 내는 로트바르트의 힘에 의해 호숫가로 이끌려 간다. 자신을 심연으로 이끄는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어두운 욕망이 형상화된 분신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걸음을 옮기는 춤이다. 마치 지킬이 하이드에게 잠식당하듯 왕자의 여정은 빛이 아닌 자신의 어둠을 대면하는 길로 이어진다.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될 호숫가가 내면의 가장 깊은 그림자에 의해 인도된 공간이라는 점은 국립발레단 버전이 지닌 독특한 역설이다. 그리고로비치는 고전의 정수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24마리 백조가 만드는 기하학적 대칭은 프리파-이바노프 원안무의 고전적 아름다움을 충실히 따른다. 달빛 아래 정렬된 순백의

대열은 지그프리트가 매혹된 환상의 공간을 시각화한다. 2막 1장에 등장하는 흑조 오딜과 지그프리트의 그랑 파드되는 왕자가 자신의 그림자에게 휘둘리는 위기의 순간으로서, 가장 화려한 춤으로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음악적 차이도 있다. 그리고로비치는 차이콥스키가 직접 쓰지 않은 후대 삽입 음악을 제거하면서 안무를 시작했다. 차이콥스키의 악보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손질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음악 순서도 2막 1장의 파드되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로잡았다. 음악과 안무가 긴밀하게 맞물린 구성은 심리적 여정을 설득력 있게 따라가면서도, 고전발레 특유의 형식미와 시각적 쾌감을 놓치지 않는다.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일시 6월 12일(금) 오후 7시 30분, 13일(토) 오후 3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 2026 발레 스타즈

# 한여름 밤의 발레 축제

여름이면 기다려지는 성남아트센터의 특별한 발레 갈라공연, <2026 발레 스타즈>가 올해에도 관객을 찾아온다. 국내외에서 무대를 빛내는 발레 스타들과 차세대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클래식 발레의 명장면부터 컨템퍼러리 작품까지 발레의 다채로운 매력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최재우

2

1. 2024년 <발레 스타즈> 중 이상은의 <빈사의 백조>  
2. 2025년 <발레 스타즈> 중 정재은, 료타 키타이의 <지젤> 2막 중 파드되

2020년 첫선을 보인 <발레 스타즈>는 매해 매진을 기록하는 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올해에도 대한민국 1세대 스타 발레리노 김용걸이 예술감독을 맡아,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무용수들과 발레계 차세대 주역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이끈다.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라 바야데르>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발레의 명작부터 국내 무대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컨템퍼러리 작품까지 다채로운 춤의 축제가 2부에 걸쳐 펼쳐진다.

1부에서는 클래식 발레의 대표 장면들로 무대를 연다. 지난해 한국인 최초 로잔발레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신예 박윤재와 올해 로잔발레콩쿠르 결선 무대에 오른 전지율이 <탈리스만>의 그랑 파드되를 선보이고, 영국 로열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한나, 루크 포스컷(Luc Foskett)이 <라 바야데르> 3막 파드되로 호흡을 맞춘다. 일본 3대 발레단으로 꼽히는 쿠마가와 테츠야 K-발레 도쿄의 전현직 수석 무용수 이이지마 노조미와 아마모토 마사야가 <지젤> 2막 중 파드되를, 영국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이상은이 <빈사의 백조>를 통해 클래식 발레의 깊은 정서를 전한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무용수들의 개성과 에너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날 수 있다. 김용걸댄스시어터 단원 김다운이 <편견> (김용걸 안무)을, 도쿄시티발레단의 주역 조민영이 우크라이나 민속춤에 기반한 에너지 넘치는 남성 솔로 <Gopak>을 선보이며 1부의 흐름에 색다른 결을 더한다. 여기에 미국 보스턴발레단 수석 무용수 채지영과 솔리스트 이선우가 함께하는 <차이콥스키 파드되>가 1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2부에서는 발레의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한다. 미국 휴스턴발레단 코르도발레 이윤주와 윤별발레컴퍼니 이은수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부에 김용걸이 안무를 더한 <The

Nature>를 선보이고, 이상은은 영국 로열발레단의 동료 무용수 렌타로 나카아키(Rentaro Nakaaki)가 안무한 신작 <Nature Boy>를 한국 관객에게 처음 소개하며 클래식과는 또 다른 감각의 무대를 보여 줄 예정이다.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허서명과 코르도발레 안수연은 <백조의 호수> 중 흑조 그랑 파드되로 강렬한 장면을 선사하고, 박한나와 루크 포스컷은 웨인 맥그리거(Wayne McGregor)의 컨템퍼러리 작품 <Infra>로 동시대 발레의 움직임의 전한다.

차세대 무용수들의 무대도 이어진다. 2026년 로잔발레콩쿠르 2위와 관객상으로 2관왕에 빛나는 염다연은 국립발레단 양준영과 함께 <다이애나와 악테온> 파드되를 선보인다. 이윤주와 전미국(전미국) 발레단 시니어 솔리스트 이승현의 <회색빛 하늘> (김용걸 안무)에 이어, 이이지마 노조미와 아마모토 마사야, 계원예술고등학교 김하은이 함께하는 <돈키호테> 3막 그랑 파드되가 공연의 마지막을 경쾌하게 장식한다. 여기에 발레 음악에 깊은 이해를 가진 지휘자 김광현과 코리아콤포스트라의 연주가 더해져, 무대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한 편의 전막 발레가 서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공연이라면, 갈라 공연은 각 작품의 핵심 장면을 통해 무용수의 기량과 작품의 매력을 압축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된다. 클래식 발레의 정교한 아름다움과 컨템퍼러리 발레의 확장된 움직임까지 아우르는 <2026 발레 스타즈>는 발레를 오래 사랑해 온 관객에게도, 처음 만나는 관객에게도 동시대 발레의 다채로운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 2026 발레 스타즈

일시 7월 25일(토) 오후 5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2026 여름특별기획전 <캐서린 번하드 특별전>

## 회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

슈퍼모델, 핑크 팬더, E.T., 피카츄, 심슨, 도리토스, 나이키, 크록스...

우리의 일상에서 익숙한 캐릭터와 사물은 캐서린 번하드 Katherine Bernhardt, 1975- 작품 세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들이다. 2000년대 초 뉴욕 미술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번하드는 매일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을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붓질로 대형 캔버스 위에 끊임없이 기록해 왔다.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대중문화와 일상 속 소비문화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주제는 작가의 창작을 거쳐 새로운 회화적 맥락으로, 유쾌하고 긴장감 넘치는 시각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글·사진 UNC갤러리



무엇이든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회화라는 매체에 대한 믿음은 캐서린 번하드를 현대미술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역동적인 작가로 만들었다. 번하드는 틀에 박힌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감각을 믿고, 형식보다 직관을 우선하며, 회화라는 매체가 지닌 자유를 관철해 왔다. 번하드의 회화는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기보다 한 예술가의 개인적 경험과 시대적 감각이 자유롭게 뒤섞이는 실험의 장에 가까우며, 동시에 이미지 과잉의 동시대 시각 환경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기록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번 전시의 소재목인 <모델, 뮤지션, 모로코, 마법, 연보라, 괴물 그리고 빨강 models, musicians, Morocco, magic, mauve, monsters and magenta>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전시에서는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가의 작업 세계에 담긴 무한한 에너지와 상상력을 만나 볼 수 있다. 불규칙하게 나열된 이 일곱 가지 핵심 키워드는 작가가 구축해 온 화려하고도 역동적인 서사를 대표한다.

전시는 작가의 삶과 작업에 영향을 준 주요 작업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 '슈퍼모델과 캐서린 번하드의 시작'에서는 슈퍼모델, 스와치, 모로코 캣츠 시리즈를 통해 인물에서 사물, 패턴 회화로 확장되는 초기 작업의 흐름을 살펴본다. 두 번째 섹션 '정글, 새로운 패턴 회화의 탄생'은 푸에르토리코의 열대적 색감과 뉴욕의 그래피티 문화가 결합하며 번하드 특유의 패턴 회화가 형

성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세 번째 섹션 '피자, 나이키, 토일렛 페이퍼'에서는 일상과 소비문화 속 사물들이 회화의 중심으로 들어오며, 익숙한 이미지가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새로운 시각적 리듬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어 네 번째 섹션 '현대미술이 된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에서는 포켓몬, 바트 심슨, 가필드 등 친숙한 캐릭터들이 과감한 색채와 화면 구성 속에서 현대미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마지막 섹션 '예술이 자라는 곳'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번하드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으로, 그녀의 작업에 영감을 준 다양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 1997년 그녀가 가장 처음 그린 E.T.와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된 뒷이야기, 네모난 초록 샤워실과 '이 세상에 똑같은 핑크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핑크 팬더 작업 등 작가의 창의적 세계와 개인적인 삶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화가이자, 회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하며, 하나의 문화적 기호로 자리 잡은 캐서린 번하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릴 것인가에 대한 그녀의 끊임없는 고민과 도전적인 태도는 회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현대미술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이번 전시는 번하드의 자유로운 회화적 태도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각 언어를 새롭게 감각하고, 예술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Katherine Bernhardt, Courtesy artist and David Zwirner



© Katherine Bernhardt, Courtesy artist and David Zwirner



“무언가 원초적인 것을 한다는 게 재미있어요. 이 시대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에요. 지금은 컴퓨터와 기술의 시대잖아요. 그림에도 여전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조금 우스우면서도 멋지게 느껴져요.”  
캐서린 번하드

**2026 여름특별기획전 <캐서린 번하드 특별전>**

일시 7월 3일(금)~9월 6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031-783-8142-9

- 1.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작가
- 2. Magic, 2010, Acrylic on canvas, 152.4×121.9cm
- 3. Happiness, 2018,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182.9×152.4cm
- 4. Pink Panther + Scotch Tape + Green Plantains, 2019,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304.8×609.6cm





2026 성남작가조명전II 김홍년 <꿈의 대화: Dreams in Dialogue>

## 시대의 폐허에서 피어난 나비

성남큐브미술관은 올해 두 번째 성남작가조명전으로 중견 서양화가 김홍년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꿈의 대화: Dreams in Dialogue>를 선보인다. 김홍년은 1980년대 한국미술에서 대두된 '탈-장르'의 흐름 속에서 설치미술과 평면 작업을 병행하며 독자적인 조형 세계에 천착해 온 작가이다. 198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재학 당시 미술 소그룹 '난지도'를 창립해 활동하며 당시 단색화와 민중미술로 양분되던 한국미술의 다원화를 모색했다. 신진 시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의 주요 전시에 참여하며 주목을 받았고, 최근 1980년대 한국현대미술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의 40여년 작업 세계 역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글 박은경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이번 전시 <꿈의 대화: Dreams in Dialogue>는 현재 '나비 작가'로 불리는 김홍년 작가의 최근 작업 세계를 조명하는 동시에, 1980~90년대 신진 시절 전개한 설치와 회화 작업을 함께 선보이며 그의 예술세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작가는 1996년부터 <화접(花蝶, Lovefly)> 연작에 주력하고 있다. '하나의 날개로는 날 수 없다'라는 '공존'의 메시지가 담긴 김홍년의 나비 작업은 그의 예술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작이다.

전사실 2층에는 나비가 탄생하기 이전, 김홍년의 초기 작업 세계가 펼쳐진다. 김홍년이 신진 작가로 활동한 1980년대 한국 미술계는 단색화와 민중미술로 양분되던 시기였다. 당시 청년 작가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서구 미술의 양식과 트렌드를 수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감각 속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미술의 표현 방식을 찾는 일이었다. 김홍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매체와 장르를 다변화하는 '탈-장르'적 작업을 전개하며 주목받았다.

미술은 그것이 생산된 시대와 사회를 말하는 하나의 시각 기호로 기능한다. 김홍년은 특정 미술 사조나 담론에 자신의 조형 세계를 가두지 않고, 독자적인 조형 철학을 바탕으로 시대를 표상하는 시각 기호를 그려 내고 있다. 신진 시절 김홍년이 즐겨 사용한 작업 재료는 '폐기물'이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아파트 건설 붐을 거치며 새로운 주거문화와 물질문화를 형성했다. 생활 폐기물이 급증하던 이 시기, 김홍년은 쓰임을 다하고 버려진 사물의 '물성(materiality)'에 주목했다. 그에게 '물성'은 단순한 재료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사물-환경의 관계를 드러내는 근원이었다. 한지, 과종시계, 못과 목재 등 일상 오브제와 폐기물을 재료로 활용한 그의 설치 작업은 미술 소그룹 '난지도'의 창립과 활동으로 이어지며 더욱 확장되었다.

김홍년은 당시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였던 박서보와 서승원 등 1세대 단색화 작가들에게서 제도권 교육을 받은 첫 세대였으나, 그 미학적 권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제3의 길'을 모색했다. 특히 1985년부터 '난지도'와 '메타박스' 등 젊은 작가들의 소그룹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설치 작업과 매체-장르적 실험을 중심으로 한 연합 전시들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고 한국미술의 다원성을 이끌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최근작과 함께 초기 회화가 다수 출품되어 1980~90년대 한국미술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김홍년의 <바보 인생의 송고한 이데아><sup>1980</sup>는 이번 전



시를 계기로 처음 공개되는 작품으로, 1979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화항쟁을 목격한 경험을 계기로 그려졌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던 시대, 예술가로서 침묵하지 않았던 그의 청년기 작업 태도와 초기 화풍을 엿볼 수 있다. 매체와 물성을 다변화하며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 온 김홍년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의 제목 <꿈의 대화>는 작가의 예술적 태동기인 1980년대의 시대적-문화적 상징성을 소환하는 동시에, 신진 시절 작가가 품었던 시대적 고뇌와 완숙기에 접어든 예술적 사유가 관객의 시선과 맞닿아 교감하는 순간을 은유한다. 이번 전시가 지난 40여년간 이어 온 김홍년의 예술세계를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 김홍년, <화접(花蝶)-Blue 2507-E60-III>, 2025, Acrylic on canvas, Emotogram, 97×97cm
2. 김홍년, <바보 인생의 송고한 이데아>, 1980, Oil on canvas, 112.1×145.5

**2026 성남작가조명전II 김홍년**  
**<꿈의 대화: Dreams in Dialogue>**  
 일시 5월 15일(금)~7월 12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03-783-8142-9

<오후의 콘서트> 진행자,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 평일 오후 3시, 음악은 여행이 된다

성남아트센터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오후의 콘서트>는 매달 한 나라를 정해 그 나라의 음악과 문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다. 평일 오후 3시, 조금은 느슨하고 여유로운 시간에 펼쳐지는 이 무대에서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는 관객과 연주자 사이를 자연스럽게 잇는 안내자로 함께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이자,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가 전하는 <오후의 콘서트>의 매력을 들어 보았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올해 성남아트센터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 <오후의 콘서트>의 진행을 맡으셨어요. 함께하시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서울, 수원, 인천 등 여러 공연장에서 단일 콘서트나 오페라 축제 등의 사회를 맡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연간 시리즈로 기획된 공연의 진행을 맡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워낙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음악을 통해 여러 나라의 문화를 만난다는 기획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오후의 콘서트>는 연주와 해설, 음악과 문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연이에요. 매달 한 나라를 선정해 그 나라의 음악을 중심으로 역사와 예술, 삶을 풀어내는데요, 평일 오후 3시, 여유로운 시간대에 음악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낀 <오후의 콘서트>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고 진행도 종종 맡는데, 대체로 클래식이나 오페라 중심인 경우가 많았어요. <오후의 콘서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르나 공연장에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음악까지 폭넓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재즈 같은 음악을 알고는 있어도, 직접 재즈 카페

를 찾거나 관련 무대를 일부러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어떤 연주자나 밴드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이지, 100분 동안 한 장르를 소개하고 그 음악을 깊이 있게 즐기는 무대는 드물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후의 콘서트>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장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무대인 것 같아요. 하나의 공연 시리즈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매달 새로운 나라의 음악을 소개하는 만큼 준비 과정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시나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예요. 제가 잘 알고 좋아하는 장르도 있지만, 모르는 음악을 배워 나가는 재미도 있어요. 첫 공연에서 다룬 '한국 가곡'은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가곡의 역사와 특징 같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서 좋았고요, 4월에 공연한 '보헤미아 음악'의 경우 체코 작곡가들의 작품을 새롭게 소개할 수 있었어요. 5월 공연에서는 프랑스 상송을 소개했는데, 저에게는 아주 친숙한 음악이라 반가웠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서로 이웃한 나라이다 보니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상송이나, 반대로 프랑스어로 번역된 이탈리아 노래가 많거든요. 두 나라에서 동시에 활동했던 뮤지션도 많고요. 매달 다른 음악을 만나면서 저 역시 한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오후의 콘서트> 4월 공연



**첫 공연 이후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공연에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평일 오후 공연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도 한몫 했을까요?**

맞아요. 사실 첫 공연 때에는 제가 외국인이고 전문 아나운서가 아니다 보니 발음이나 진행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했고, 대본에 의지해 조금 딱딱하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객분들이 음악을 편안하게 즐겨 주시고 무대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셔서 저도 점점 이 공연에 녹아들 수 있었어요.

솔직히 평일 오후에 하는 콘서트라 관객이 많이 오실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매회 객석이 꽉 차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남에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들이 많다는 것도 새삼 느꼈고요. 주말이나 저녁 공연과는 다르게, 바쁜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 오후의 여유를 즐기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 분위기 덕분에 저도 관객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인으로서, 유럽과 아시아 문화권을 모두 경험해 온 입장에서 음악으로 그 나라의 역사나 정서, 삶의 방식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악은 누구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음식과 음악만큼 직관적이고 자

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미술, 문학 등 모든 예술에는 저마다의 깊이가 있지만, 음악은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듣는 순간 바로 마음에 닿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외국 음악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알고 들으면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전통 장르인 파두(fado)를 아무 정보 없이 들으면 그저 슬프고 애절한 음악처럼 느껴지겠지만, 포르투갈과 브라질 문화권에 있는 '사우다데(saudade)'라는 정서를 알고 들으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우다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라진 시간에 대한 애뜻함을 의미하는데,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문화권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예요. 판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음악이지만 한국의 '한(恨)'의 정서를 알고 들으면 그 매력을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오후의 콘서트>가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콘셉트로 하지만, 사실 여기에 음악만 들어가지는 않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음악과 예술, 문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 공연을 즐기면 좋을까요?**

잘 모르는 장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연장에 오셔서 설명도 듣고 연주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음악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예요. 잘 아는 음악이라면 더 깊이 듣고, 낯선 음악은 자기만

의 방식으로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의 콘서트>의 진행자로서 관객과 무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공연에서 약간 '짜두기'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좋은 연주자들이 무대에 서시니까, 제가 앞에 나서기보다는 옆에서 연주자들이 더 돋보일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죠. 음악을 듣다가 쉬어 가는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 드리고, 관객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대신 던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 아나운서도 아니고 외국인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제가 잘 몰라서 여쭙 보는데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려고 해요. 관객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것을 함께 물어보고, 음악과 연주자를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평소에 음악을 자주 들으신다고요. 좋아하는 장르나 아티스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우선 재즈를 정말 좋아해요.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와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을 특히 좋아하고, 월드뮤직 중에서는 아프리카 음악인 펠라 쿠티(Fela Kuti)의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요즘에는 펑카

델릭(Funkadelic) <Maggot Brain>에도 꽂혀 있고요.

한국 음악도 많이 듣습니다. 들국화, 산울림, 한대수, 정태춘 같은 1970~80년대 음악부터 언니네이발관, 장기하와 얼굴들이나 어어부 프로젝트의 실험적인 음악까지 두루 찾아 듣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클렌체크, 팍, 파란노을 같은 젊은 밴드 음악, 그리고 전통음악을 새롭게 해석하는 악단광칠까지 폭넓게 즐기고 있고요. 조용필, 이미지 선생님도 빼놓을 수 없죠. 말하다 보니 너무 많아지는데, 그만큼 음악을 좋아해서 오히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예요.

**마지막으로 <오후의 콘서트>를 찾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 역시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니는 사람으로서, 음악은 현장에서 들을 때 가장 생생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꼭 공연장에서 직접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후의 콘서트>는 매달 주제가 달라서 여러 음악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음악은 정말 좋다' '이 음악은 나랑은 좀 안맞네' 하면서 자기 취향을 찾아 갈 수 있어요.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악뿐 아니라 그 음악이 태어난 문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실 수 있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꼭 공연장에 오셔서 함께 느껴 보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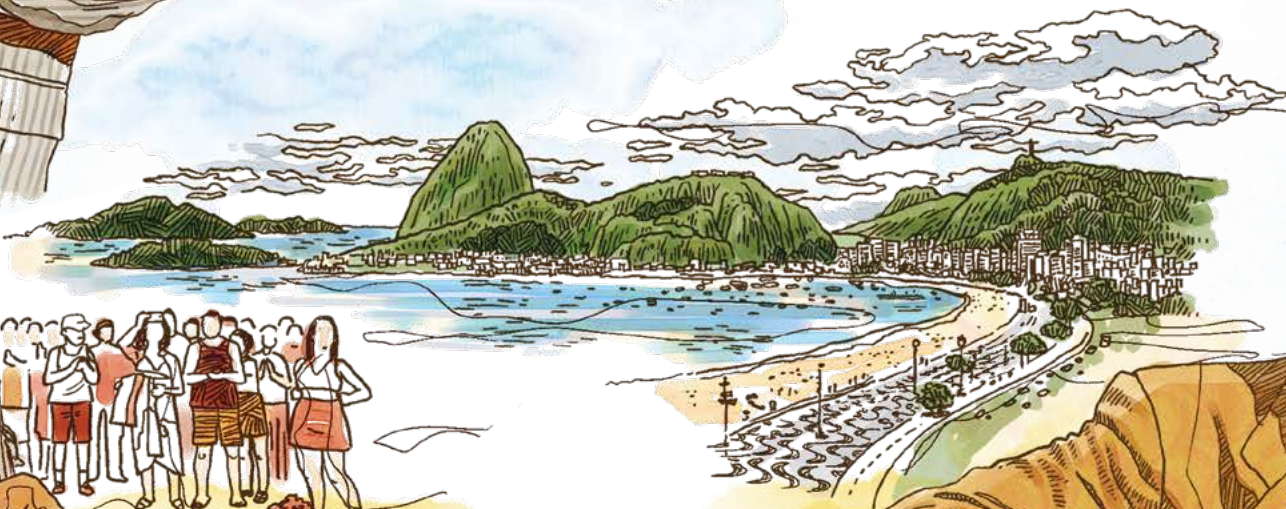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 Ⅲ 브라질 보사노바

## 브라질 리우에서 불어온 상쾌한 바람, 보사노바

보사노바 Bossa Nova는 1950년대 후반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겨난 음악입니다. 스윙 재즈를 지나 재즈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비밥을 필두로 모던 재즈가 1940~50년대 휘몰아친 후, 새로운 흐름이 꿈틀거릴 때입니다. 프랑스의 누벨바그 Nouvelle Vague, 아르헨티나의 누에보 탱고 Nuevo Tango,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꽃피운 팝 아트 Pop Art 모두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 전 세계 예술가와 애호가들 사로잡은, 이른바 '새로운 물결 New Wave'이었지요. 보사노바는 카니발의 심장이자 영혼인 삼바 Samba의 격정적인 리듬과는 달리 어쿠스틱 기타와 차분한 보컬로 표현한 도시 음악입니다. 1950년대 미국 서부에서 인기를 얻은 쿨재즈 Cool Jazz의 상큼한 선율과 정제된 리듬에서 영향받았고 이후 미국으로 역수출되어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글 김광현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 | 일러스트 박양수



브라질 보사노바 음악을 대표하는 얼굴들  
 왼쪽부터 색소포니스트 스탠 게츠(1927~1991)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안토니우 카를루스 조빙(1927~1994)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주앙 지우베르투(1931~2019)

보사노바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작곡가 안토니우 카를루스 조빙(Antonio Carlos Jobim)은 1958년 발표된 최초의 보사노바 곡으로 인정받는 'Chega de Saudade'를 비롯해 'The Girl from Ipanema' 'Desafinado' 'Água De Beber' 'Wave' 'Insensatez'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라이브 클럽 등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보사노바에서 빠질 수 없는 낭만적인 노랫말은 브라질의 시인이자 작사가인 비니시우스 지모라에스(Vinicius de Moraes)가 맡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사노바 대부분이 리우데자네이루 출신인 조빙과 비니시우스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니시우스가 쓴 희곡을 바탕으로 한 연극 <경축일의 오르페우>(Orfeu da Conceição, 1956)에 조빙이 참여한 것이 시작이었고, 이 연극은 3년 후 영화 <흑인 오르페>(Orfeu Negro, 1959)로 제작되어 보사노바를 세계에 알리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영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비극을 현대 브라질 카니발로 옮긴 작품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비롯해 제32회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 글로브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받았습니다.

### 전 세계에 이파네마 해변을 알리다

브라질 음악인 보사노바가 재즈 시장에서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 계기는 걸작 <Getz/Gilberto>의 큰 성공 때문입니다. 보사노바 씨앗을 미국에 가져온 재즈 기타리스트 찰리 버드(Charlie Byrd)가 테너 색소포니스트 스탠 게츠(Stan Getz)와 발표한 <Jazz Samba>(Verve, 1962)가 이전에 있었지만, 역사적인 타이틀은 <Getz/Gilberto>가 차지합니다. 보사노바의 핵심인 '보컬 중심 형식'을 완벽히 살린 <Getz/Gilberto>가 대성공을 거두며 타이틀 곡 'The Girl from Ipanema'(원제 Garota De Ipanema)는 비틀스가 석권하던 1964년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5위까지 올랐습니다. 보사노바가 만들어진 1958년 이후 미국에 소개된 보사노바 음반이 대부분 기악 연주 중심인 재즈 콘셉트를 따랐다면 <Getz/Gilberto>는 거기에 보컬을 더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재즈 지분은 재즈 거장 스탠 게츠, 보사노바 원형은 브라질 출신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주앙 지우베르투, 그리고 음악은 대부분의 곡을 작곡하고 피아노를 연주한 안토니우 카를루스 조빙이 책임졌습니다.



### 보사노바가 가진 편안한 리듬은 한국 대중음악에 영향을 미쳐 그룹 어떤날의 '오래된 친구',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장필순의 '어느새'와 같은 보사노바 가요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Getz/Gilberto>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는데 바로 주앙의 아내인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Astrud Gilberto)입니다. 'The Girl from Ipanema'에서 주앙이 포르투갈어로 부르는 1절에 이어 2절은 영어가 가능했던 아스트루드가 다소 급작스럽게 섭외되어 영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렇듯 주앙보다 아스트루드가 주목받게 되면서 5분대로 다소 긴 'The Girl from Ipanema'를 주앙 부분을 빼고 아스트루드의 노래만 살린 2분대 라디오 버전까지 발매합니다. 브라질 바이아 태생인 아스트루드는 독일계 아버지와 브라질계 어머니의 혼혈로 이후 브라질 노래뿐 아니라 재즈와 팝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보사노바 여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 브라질에서 미국을 거쳐 전 세계로

1960년대 재즈 신은 모던 재즈의 광풍 이후 다채로운 스타일로 분화합니다. 보사노바, 프리 재즈, 소울 재즈, 에스닉 재즈, 그리고 60년대 후반 록과 재즈가 섞인 재즈 퓨전까지 등장합니다. 이 중 대중에게서 사랑받은 스타일은 당연히 보사노바로 재즈 보컬의 여왕 엘라 피츠제럴드, 새라 본과 재즈와 팝의 거물 프랭크 시나트라 등 전설들이 보사노바를 적극 소화해 노래합니다. 정식 음반 발매뿐 아니라 라이브 때마다 보사노바 한두 곡은 꼭 부르고, 이와 같은 경향은 현재 재즈 콘서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컬리스트뿐 아니라 찰리 버드, 조 헨더슨, 헹크 모블리 등 주류 재즈 연주자까지 보사노바 시장에 적극 가담합니다. 보사노바는 이후 재즈 장르에만 머물지 않고 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973년 데뷔한 싱어송라이터 마이

클 프랭스(Michael Franks)는 차분한 보사노바 리듬을 살린 노래 'Antonio's Song' 'Vivaldi's Song' 'Down In Brazil'로 보사노바의 저변을 넓힙니다. 그리고 보사노바뿐 아니라 브라질 대중음악(MPB, Música Popular Brasileira)을 대표하는 카에타노 벨로주(Caetano Veloso)가 스페인 영화 <그녀에게>(Hable Con Ella, 2002)에서 직접 부른 'Cucurricucu Paloma'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사노바가 가진 편안한 리듬은 한국 대중음악에 영향을 미쳐 그룹 어떤날의 '오래된 친구',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장필순의 '어느새'와 같은 보사노바 가요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을 만들고 부른 조덕배는 보사노바 전문 가수라 해도 될 활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보사노바는 삼바의 리듬을 '줄이고', 재즈의 화성을 '더한'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 가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조빙이 만들어 놓은 틀이 완벽해서일 텐데 그 흐름을 지난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에서 확인했습니다. 한 나라가 가진 예술적 자부심을 보여 주는 개막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The Girl from Ipanema'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조빙의 영상을 배경으로 무대에서 노래한 아티스트가 손사 다니엘 조빙이었습니다. 개막식 경기장을 메운 관객뿐 아니라 저도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사노바는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리듬과 선율을 담은 보사노바는 오후의 콘서트 6월 공연 <속삭이는 파도, 보사노바의 리듬>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추천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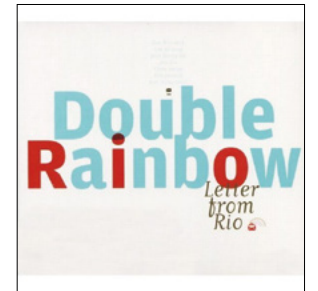
스탠 게츠/주앙 지우베르투 Stan Getz and João Gilberto: **Getz/Gilberto** Verve, 1964

어떤 앨범을 들어야 하나 고민이 된다면 바로 <Getz/Gilberto>를 선택하면 됩니다. 1962년 카네기홀 콘서트를 계기로 미국에서 기반을 마련하게 된 조빙과 지우베르투가 1964년 3월, 미국에서 녹음한 기념비적인 음반이죠. 테너 색소포니스트 스탠 게츠, 기타와 보컬로 보사노바의 전형을 제시한 주앙 지우베르투, 그리고 시작은 미미했지만 이후 큰 역할을 하는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의 노래까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1964년 제7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 후보에 올라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레코드 등 총 4개 트로피를 거머쥔 명반입니다.



리사 오노 Lisa Ono: **Pretty World** Suite/Supuesto!, 2000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으로 포르투갈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보사노바의 여신 리사 오노의 대표작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TV-CF에서 자주 만났던 상큼한 리사 오노의 목소리와 기타 연주를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스티비 워더 'My Cherie Amour', 비틀스 'Yesterday' 등 명곡을 차분히 보사노바로 다시 불러 폭넓게 사랑받은 음반이죠. 타이틀 곡 'Pretty World'는 브라질 음악의 거장 세르지오 멘데스가 1969년에 발표한 곡으로 원곡을 재소환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블 레인보우 Double Rainbow: **Letter From Rio** Universal Music, 2007

조빙이 발표한 곡명을 밴드명으로 한 더블 레인보우가 발표한 <Letter From Rio>는 한국 최초로 보사노바만을 담은 음반입니다. 국내 재즈 아티스트 중 각 악기에서 최고의 연주자가 모인 드림팀으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민석을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리우 출신이예요' *Ela É Carioca* '를 타이틀로 'Fotografia' 'Insensatez' 등 정통 보사노바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 오.후.의.콘.서.트

예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 다섯 번째 여정 탱고, 한낮의 열정

티켓 전석 20,000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2026.9.2.WED  
3:00PM

# SNART

성남아트센터  
양상블시어터

# CULTURE

예술 애호가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예술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금의 문화 흐름을 읽고 향유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 60

오페라 산책  
알고 보면 쉬운 오페라 이야기  
- 셰익스피어와 오페라



## 66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별세>

## 70

BOOK  
이한권의 책





©Ken Howard/Metropolitan Opera

알고 보면 쉬운 오페라 이야기-  
셰익스피어와 오페라

## 비극부터 희극까지, 오페라 무대가 사랑한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는 '천재적인 언어 감각, 강렬한 연극성, 전 유럽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배경'의 희곡 작품들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극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총 38편의 희곡을 발표했는데, 이들 작품 속에는 풍성한 인문학적 지식, 탁월한 묘사력과 촌철살인의 풍자, 압도적인 스토리와 심오한 주제 의식이 넘쳐흐른다. 사후 410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음악, 발레, 연극, 영화 등으로, 심지어는 만화와 게임으로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그 압도적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다.

글 황지원 오페라 평론가

사실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오페라계였다. 음악과 문학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인 오페라는 아름다운 음악만큼이나 이야기의 힘과 문학적인 감동이 특별히 중요하다. 따라서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들은 너나할 것 없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탐독했으며, 그의 작품이 지닌 수려한 언어 감각과 극적인 스토리들은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선율들과 만나 인류 문화의 보석과도 같은 명작 오페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여기 오페라로 만들어진 최고의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소개한다.

## 프랑스 서정에 물든 비극적 사랑 이야기

샤를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Roméo et Juliette*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탈리아 베로나를 배경으로, 원수 집안 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비련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워낙에 인기 있는 작품이라 수많은 작곡가가 오페라화를 시도했지만, 그중에서도 샤를 구노의 작품이 단연 첫손에 꼽힌다.

프랑스 오페라는 이탈리아와는 달리 극적이고 정열적이기 보다는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정밀한 로맨티시즘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노 역시 작품의 열개와 구성은 원작과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프랑스 작곡가 특유의 시적인 관현악법과 정밀한 감수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막 무도회 장면에서 줄리엣이 부르는 소프라노 아리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Je veux vivre*'와 2막 로미오의 테너 아리아 '태양이여 떠올라라 *Ah! lève-toi, soleil!*' 등은 최고의 명곡으로, 지금도 콘서트홀에서 단독으로 공연되는 경우도 많다. 원작과 다르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기 직전 단 몇 분간 재회하는 장면도 있어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한다. 한편,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 빈첸초 벨리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아니라 이탈리아 현지의 원전 설화에 기반한 <카풀레티와 몬테키 *Capuleti e i Montecchi*>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로미오 역을 메조소프라노에게 맡겨 보다 음영이 뚜렷한 이탈리아식 비극의 정점을 보여 준다.

## 무대를 압도하는 권력과 욕망의 비극

주세페 베르디, <맥베스> *Macbeth*

'이탈리아 오페라의 왕'이라 불리는 주세페 베르디는 실로 셰익스피어를 사랑한 작곡가였다. 그는 프리드리히 실러를 원작으로 한 <루이자 밀러> <돈 카를로>와 빅토르 위고의 희곡에 음악을 붙인 <에르나니> <리콜레토> 등도 썼지만, 평생 존경하고 가장 큰 애정을 쏟은 작가는 역시 셰익스피어였다. 특히 <맥베스>는 베르디가 셰익스피어를 원작 삼아 쓴 첫 번째 오페라로, 30대 작곡가 특유의 불같은 열정이 넘쳐 흐르는 작품이다.

당시만 해도 <맥베스>는 오페라화가 불가능한 희곡으로 생각되었다. 당시 오페라 무대의 필수 요소였던 '러브라인'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르디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 대신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인간의 탐욕과 나약함이 불러오는 죄의식 등 셰익스피어가 강조한



심오한 주제 의식에 집중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주인공에 대한 어둡고 심오한 심리 묘사가 압권이다. 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찬탈한 맥베스가 느끼는 불안감, 타오르는 욕망으로 가득 찼으나 결국은 망령에 시달리며 생명력을 잠식당하는 레이디 맥베스의 모습 등이 30대의 베르디가 써 내려간 뜨거운 숨결의 관현악을 통해 너무나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심지어 베르디는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의 이중창 장면에서 '너무 예뻐게는 부르지 마라'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렸다. 그저 아름답고 우아하게만 노래하던 오페라 무대 전통에 반기를 들고 우리 인간이 지닌 공포와 불안감의 뒤얽린 심층 심리를 보다 실감 나게 목소리로 표출하라는 극적 연기력을 성악가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맥베스가 오페라의 종반부에서 노래하는 아리아 '연민도 존경도 사랑도 *Pieta, rispetto, amore*'는 특히 감동적이다. 그것은 '노년의 나에겐 연민도, 존경도, 사랑도 사라지고 오직 저주와 불행의 기억만이 남을 것이다'라는 비장한 토로이다.

## 방황하는 왕자보다 비련의 오펠리어를 노래하다

앙브루아즈 토마, <햄릿> *Hamlet*

셰익스피어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햄릿>은 수많은 작곡가가 오페라화에 도전했으나, 토마가 쓴 프랑스어 오페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초연 때부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원작과 달리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결말이 특히 문제였다.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본 작가이기도 했던 당대의 명대본가 쥘 바르비에와 미셸 카레는 셰익스피어의 길고 복잡한 원작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략과 축약을 감행했고, 등장인물도 절반으로 줄였다. 결정적으로 피날레에서 햄릿이 죽지 않고 왕위에 오르는 것이 문제가 되어 원작의 주제 의식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쨌거나 토마의 오페라는 낭만주의 문법에 충실하다. 즉, 복수와 도덕적 갈등 사이에서 방황하는 왕자 햄릿의 복잡한 심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햄릿과 그의 비련의 연인 오



펠리어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나 오페라 속에 등장하는 '오펠리어의 죽음'은 너무나 빛나는 명장면이다. 작곡가는 사랑을 잃고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채 차가운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오펠리어의 비극적 죽음을 무려 15분 길이의 장대한 '광란의 아리아' *Mad Scene*로 묘사하고 있다. 원작에선 오펠리어의 죽음이 제3자의 설명 형식으로 묘사되지만, 오페라에서는 관객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써 비극적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콜라투라 소프라노가 극한의 기교를 총동원해 노래하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19세기 프랑스 오페라가 도달한 가장 위대한 비극의 클라이맥스라 할 것이다.

1.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2016/17 시즌 공연 사진
2. 오페라 <맥베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2014/15 시즌 공연 사진
3. 오페라 <햄릿> 파리 국립오페라 Opéra national de Paris, 2022/23 시즌 공연 사진



©Barbara Pálffy/Volkoper Wien

1

## 풍자와 웃음으로 풀어낸 유쾌한 희극

오토 니콜라이,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Die lustigen Weiber von Windsor>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립자로도 유명한 오토 니콜라이는 젊은 시절 이탈리아 로마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미로운 이탈리아식 벨칸토와 독일풍의 유려한 관현악이 조화를 이룬 오페라들을 발표해 큰 인기를 모았다. 그의 대표작은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인데, 셰익스피어의 동명 희곡을 바탕으로 한 3막짜리 오페라다.

전쟁이 끝나고 원저로 돌아온 존 폴스타프 경은 배나오고 똥똥하며 변명 잘하고 떠벌리기 좋아하는 무일푼 술주정꾼이다. 그는 버젓이 남편이 있는 두 여자를 유혹하며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기로 하지만, 어설픈 계획이 모두에게 탄로 나며 큰 망신을 당한다는 유쾌한 내용이다. 니콜라이는 달콤한 이탈리아식 아리아와 느긋한 민요풍의 음악을 조화해 관객들에게 넉넉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한편, 베르디 또한 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팔스타프>라는 오페라를 썼다. 이 작품은 베르디가 남긴 마지막 오페라이기도 한데, 시종일관 유쾌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도 인생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빛난다. 특히나 오페라 속 모든 등장 인물이 무대 위로 나와 푸가로 돌림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앙상블 '세상만사는 그저 농담일 뿐이랴 *Tutto nel mondo è burla*'는 베르디의 음악적 유연처럼 느껴져 지금도 가슴 찡한 감동을 선사한다.

## 질투와 파멸의 심연에서 완성된 비극

주세페 베르디, <오텔로 Otello>

<맥베스>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뒤, 베르디는 명실상부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가 되어 있었다. 당시 그는 이미 70대의 나이였는데, 최후의 열정을 불살라 쓴 기념비적인 명작이 바로 <오텔로 Otello>이다. '오텔로'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이탈리아식으로 읽은 것인데, 당시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문화 운동을 주도하던 야심만만한 작가 아리고 보이토가 대본을 맡았다.

베르디는 베네치아에서 진행되는 원작의 1막을 과감히 잘라내고 키프로스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덕분에 오페라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시종일관 박진감 넘치게 진행된다.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으며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라는 태생적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오텔로.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했던 우아한 귀부인 데스데모나의 비극이 원숙기 베르디의 놀랍도록 치밀한 음악과 시종일관 숨 막히는 호흡의 노래들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오텔로>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새로운 혁명 선언에 해당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아리아보다는 중창과 오케스트라가 작품의 중심에 서 있으며, 장면들끼리 유기적인 연속성을 지닌 점이 마치 바그너의 악극을 연상시킨다. 특히 4막에서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두 개의 장대한 모놀로그, 즉 '버들의 노래'와 '아베마리아'는 이탈리아 오페라 예술의 위대한 전통과 베르디의 지칠 줄 모르는 처절한 작가정신이 만나 탄생한 위대한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Ken Howard/Metropolitan Opera

2

1. 오페라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 Volkoper Wien, 2023 시즌 공연 사진  
2. 오페라 <오텔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2015/16 시즌 공연 사진



영화 <별새>

## 어느 왼손잡이 소녀의 성장통

‘왼손잡이’라는 노래가 있다. 그룹 패닉이 데뷔 앨범 <패닉><sup>1995</sup>에 담아 인기를 모았던 곡이다. 지금은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오래도록 이 나라에서 왼손 사용은 금기였다. 아이들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거나 젓가락을 쓰다 아버지나 집안 어른에게 혼나곤 했다. 강제로 오른손잡이가 된 애들도 많았다.

노래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라서 뭐 어쩌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표 당시에는 꽤 파격적인 노래라는 평가를 받은 걸로 기억한다. 왼손잡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살아가겠다는 ‘선언’이 X세대 그룹답다는 의견이 따르기도 했다. 왼손잡이라서 혼나고 차별받는 건 이제 이곳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됐지만 말이다.

글 라제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1999년 한국일보 인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 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학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시 『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 제공 옛나인필름

지난해 11월 미국 영화 <원손잡이 소녀>가 국내에 개봉했다. 할아버지로부터 “원손을 쓰면 악마를 돕는 거”라는 악담을 줄곧 듣는 대만 소녀가 주인공이다. 소녀는 자신이 원손잡이이라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자책한다. 대만은 원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영화다. 대만은 우리와 문화가 비슷하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사회 관습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누군가 전통에 어긋나거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가혹한 벌칙이 따른다. 소수자는 배척당한다. 다수라는 보편성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원손잡이는 여러 종류의 소수자를 대변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 외롭고 혼란스러운 중학교 2학년

영화 <별새><sup>2019</sup>의 은희(박지후)는 중학교 2학년이다. 1994년, 서울에 사는 그는 여러모로 또래들과 다르다. 원손잡이인데다, 대치동에 살면서 공부보다 연애에 더 열심이다. 담임교사가 ‘날라리’ 색칠 작업을 했을 때 걸릴 정도다. 이성을 사귀면서도 동성의 접근에 설렌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불안하며, 모든 것이 두려우면서도, 모든 것이 신기하다. 그러나 세상에 조금씩 눈을 떠 가는 사춘기 소녀라는

점에서는 또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들과 좀 다른 은희의 언행은 곧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제지당한다. 한 살 위 오빠 대훈(손상연)은 “(이성 교제로) 부모님 망신시키지 마라”며 은희를 때린다. 은희만 오빠에게 맞는 게 아니다. 은희의 절친한 친구 지숙(박서윤)은 구타로 입술이 터져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여자라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었고, ‘규칙’을 어기면 남자는 여자를 때려도 된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었을 때였으니까.

문제아 취급받던 은희에게 불량한 학원 선생님이 나타난다. 한문을 가르치는 서울대생 영지(김새벽)다. 그는 학원 건물 계단 창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운다. 게다가 은희처럼 원손잡이다. 은희는 영지에게 호감을 느낀다. 외롭고 혼란스러워 괴로운 은희에게 영지는 인생길 안내를 위해 하늘에서 보내 준 인물만 같다.

‘서울대 대신’ 후배와 노래방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 은희는 대치동에서 외계인 같은 존재다. 그의 집안 역시 마찬가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떡을 만들고 참기름을 짜 생계를 이어간다. 시골과 달리 대치동에서 ‘방앗간 집’은 그 집안을 낮잡아 보는 꼬리표다. 은희의 언니 수희(박수연)는 대치동 고교에 진학하지 못해 강북 쪽 학교에 다닌다. 대치동 주류에 합류하

고 싶은 아버지(정인기)에게는 2년 연속 학생회장을 한 외아들 대훈만이 희망이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은 은희는 누구보다 더 방황하는 듯하다. 은희는 다른 또래보다 더 혹독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인다.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자신과 가족의 정체성 때문일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격동의 시대여서일까. 아니면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일까.

### 상처를 딛고 싸우며 혼자 걸어가야 삶

서울대에 들어가면 삶의 고민은 말끔히 사라지고 방향은 끝나는 걸까. 영지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은희가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진 적 있으세요?”라고 묻자, 영지는 “응, 많아. 아주 많아”라고 답한다. “자기가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라고 말해 주기도 한다.

은희의 성장통은 오른쪽 귀에 생긴 멍울로 상징된다. 은희는 부모님이 아는 작은 병원을 홀로 다니며 치료를 받는다. 나중에는 큰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게 된다. 의사는 얼굴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큰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아버지는 걱정에 눈물을 흘리지만, 방앗간 일이 바빠 함께할 수는 없다. 은희는 외로이 병원에 머물다 혼자 집으로 돌아간다.

중학생 은희에게 세상은 온통 이해 불가다. 은희는 지속과 한 점포에서 도둑질하다가 잡힌다. 가게 주인이 전화하자 은희 아버지는 “경찰서에 그냥 넘기라”고 말한다. 지숙은 은희의 신상 정보를 주인에게 밝히는 배신을 한다. 아버지도, 지숙도 믿을 수 없다. 은희가 학원 가는 길에 보는 철거민 현수막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곳에 사는 이들은 왜 자기 집을 뺏길 신세에 처한 걸까. 후배 유리(설혜인)는 “그냥 좋아요”라며 은희에게 사랑 고백을 하더니 새 학기가 되자 왜 모른 척하는 걸까.

부모님은 노래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의 가사처럼 험한 싸움으로 산산이 깨진 애정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는데,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태평하다. 노래 ‘카테일 사랑’의 가사가 묘사하듯 세상은 낭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잘린 손가락 바라보며 소주 한 잔을’(노래 ‘잘린 손가락’ 가사) 마셔야 할 정도로 냉혹하다. 세상이 이러니 ‘눈물’과 ‘등불’과 ‘뱃’이 돼 줄 ‘여러분’(윤복희의 노래)이 절실해지는 게 당연한지 모른다.

은희는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를 통과하며 조금씩 깨닫는



영화 <별새><sup>2019</sup>  
감독 김보라  
출연 박지후, 김새벽

사춘기 소녀의 성장통을 그린 영화 <별새>는 7월 20일(월) 오후 2시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홀에서 만날 수 있다.

다. 인생이란 상처를 딛고 싸우며 혼자 걷는 것이라고. ‘(내) 얼굴을 아는 이는 천하에 가득하지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누구라도 널 때리면 꼭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래서 “참 세상은 신기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은희는 일찌감치 세상을 떠난 영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도 삼아 ‘원손잡이’의 삶을 잘 헤쳐 나갈 것이다. “힘들고 우울할 때 (자신의) 손가락”을 볼 것이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볼 것이다.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는 신비로움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삶을 앞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 이한권의 책 '인간-기계' 혹은 '기계-인간'에 맞서서

인간 문명의 거대한 변곡점, 인공지능AI이 몰고 오는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근거 없는 낙관이나 공포는 필요하지 않다. 저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 - 혹은 기계의 모습을 한 인간 - 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최대한 '공부'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만의' 무기를 갖추 수 있다. 저 '인간-기계'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글 오경진 문학 평론가, 서울신문 기자



## 어쩌면 문학이 아닐지도 몰라

"다르게 읽는다는 것은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읽음으로써 다르게 썼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새로운 생각이 가능한 문학 기계입니다. AI의 힘을 빌려, 인간이 자기 언어의 오랜 관습을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 언어가 꼭 담아 놓은 세계에서 인간이 해방을 경험하는 사건이 아닐까요."

저자 중 한 사람인 사이버텍스트 디자이너 권보연이 책에 실린 좌담에서 한 말이다. 오늘날 인간이 AI에 느끼는 공포의 핵심은 '대체 가능성'이다. 언젠가 저 기계가 나를 대신할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 문학도 마찬가지다. 아니, AI는 언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계 안에서 작가와 거의 똑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 실제 AI의 시·소설 창작 실력은 이미 수준급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문학의 종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권보연을 비롯한 저자들의 진단이다. 오히려 그동안 한계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인간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보연·김언·허희 | 리메로북스 | 300쪽 | 26,000원



## 축음기, 영화, 타자기

"레밍턴 타자기에서 튜링 기계를 거쳐 초소형 전자 공학에 이르기까지, 기계화로부터 자동화를 거쳐의 미가 아니고 부호일 뿐인 문자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문자의 매우 오래된 저장 독점이 접속 회로의 전능함으로 넘어가는 데는 1세기로 충분했던 것이다."

매체의 변천 속에서 인류사를 통찰한 20세기의 지성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명저로, 상당히 두툼하고 어려운 '벽돌책'이지만 AI 시대에 꼭 한번은 들춰 봐야 할 필독서다. 1986년 독일에서 초판을 발행한 이 책으로 키틀러는 독일의 독문학자 중 한 사람에서 세계적인 매체철학자로 발돋움한다. 지식을 저장하는 유일한 체계였던 문자의 특징은 영화, 축음기, 타자기가 속속 발명되면서 그 위상을 조금씩 상실하게 된다. AI는 문자뿐만 아니라 영화, 축음기, 타자기까지 모두 포괄해 버리는 '궁극의 매체'인 것 같다. AI 이후 인간의 '지식'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

프리드리히 키틀러 | 문학과지성사 | 564쪽 | 35,000원



## 키오스크 학교

"진실은 매 순간 변한다. 태동하는 하나의 생물이라도 되는 듯이. 혹은 수천 개의 갈래로 나뉠 수 있는 물결의 구성 성분이라도 되는 듯이."

학생들을 관공서나 식당에 서 있는 기계로 길러 내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장편 소설이다. 소설은 존재하는 것의 '목적'을 생각하게 만든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모든 도구는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다. AI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 나아가 생명은 그렇지 않다. 생명은 '먼저' 존재한다. 존재한 다음에 목적을 찾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과 AI의 결정적인 차이 아닐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AI는 절대로 방향하지 않는다. 인간은 다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 속 명문장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향한다"처럼, 존재 그 자체가 방향의 역사다. 목적 없이 흔들리고 죽을 때까지 삶의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AI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함이다.

이서아 | 민음사 | 388쪽 | 16,000원

# 2026 성남 AI+영화학교

당신의 상상력을 실현할 이야기와 비주얼, 예술과 기술이 다가온다

과정	프로그램	강사	기간	요일	시간*	차시	
AI 과정	생성형	마을미디어 역량강화 지역기반 AI 콘텐츠 제작	김지원	4.6.~6.29.	월	10:00	10
		심화 AI 극영화 포트폴리오	김성철	4.10.~7.3.	금	19:00	12
		심화 AI 콘텐츠 포트폴리오	김지원	4.15.~7.8.	수	19:00	12
		AI 실사영화	윤용훈	5.30.~9.19.	수	19:00	14
		AI 애니메이션	이지수	5.30.~9.19.	수	19:00	14
		AI 팩추얼 필름	송하령	5.30.~9.19.	목	19:00	14
	AI 광고	최승일	5.30.~9.19.	목	19:00	14	
에이전틱	경기도 공동 AI 성남을 담다	김성철	5.30.~9.19.	목	19:00	14	
영화 과정	AI와 돌이켜 만드는 원스톱 스튜디오 STEP1~2	배진환	6.23.~8.21.	화, 금	19:00	14	
	심화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	임찬상	6.26.~9.18.	금	19:00	10	
예술기술 융합과정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조세영	8.18.~10.24.	화, 토	19:00/10:00	11	
	코딩 없이 똑딱! 움직이고 말하는 나의 AI 부캐 만들기	이광현 외1	6.13.~9.19.	토	10:00	14	
	터치 디자이너 활용 프로젝트 매핑	유태양	6.13.~9.19.	토	14:00	14	
	키네틱 사운드 워크숍 : 사물의 소리, 기계의 몸짓	송효근 외1	6.13.~9.19.	토	14:0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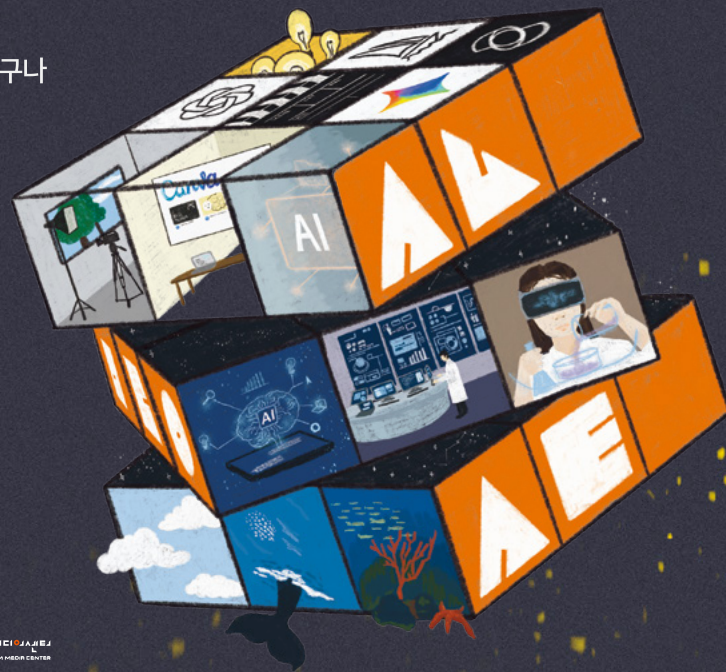
\* 교육시간은 2시간 30분 기준.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토요일 수업의 경우 5시간임.

**교육기간** 2026. 4.~10.

**참여대상** 성남시민(우선), 경기도민 누구나

**참가비** 무료

더 알아보기



# INSIDE SEONGNAM

성남을 기반으로 생성된 문화예술이 작품, 공간, 창작자를 통해 보다 깊고 넓게 교류하며 예술적 호기심으로 삶을 환기합니다.



80

스케치  
평일 낮,  
성남아트센터를 가다



74

성남의 예술가  
기획하는 시각예술인  
황지희

93

성남문화예술계 소식

86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87

6·7월의 큐레이션

97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8

성남문화재단 공간 탐구생활: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기획하는 시각예술인 황지희

## 몸을 구부려 세계의 밑면을 들여다보다

프로젝트 <7777: 산으로 간배>의 작가들은 산에서 많은 것을 채집하지 않는다. 손바닥 위에 올라갈 크기의 돌, 작은 통 하나 분량의 흙, 이름 모를 나뭇가지가 전부다. 그것을 구워 목탄을 만들고, 흙을 갈아 안료로 쓰고, 군사체를 배양해 곰팡이를 피워 본다. 작업은 번번이 예상에서 벗어난다. 그럼에도 황지희 작가는 실패의 흔적까지 드러내며 묻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걸까.

글 김호경 객원기자 | 사진 최재우

예술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성남은 어떤 곳인가?

분당구에 양지마을이 들어설 때 저희 가족도 입주했어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제가 봐 온 성남은 도시와 자연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공원이 정말 많거든요. 중앙공원에 가면 계절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아래에서 풀과 흙이 살아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특히 조카들과 동행하면 아이들은 쪼그려 앉아 도토리를 줍거나 벌레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볼 때조차 고개만 숙일 뿐인데 아이들은 땅속을 관찰하려 온몸을 숙이고 있죠. 성남은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가능한 도시예요. 굳이 깊은 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작은 녹지 안에서 다른 층위의 풍경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앞두고 계신 프로젝트 또한 시선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산에서 재료를 가져와 작업하는 전시라기보다,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에 가까워요. 요즘은 데이터가 지나치게 방대하잖아요. 화면만 열면 무한한 자료가 나오고, 원하는 풍경도 금방 소비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충만함이 실제 몸의 경험을 대신해 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걷고, 듣고, 보고, 채집하고, 기록하는 과정 자체를 작업으로 삼았습니다. 프로젝트 명칭인 <ㄱㄱㄱ: 산으로 간 배>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롯됐어요. 'ㄱ'은 몸을 구부려 바닥을 응시하며 이동하는 산행의 자세입니다. 동시에 'ㄱ'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출발의 감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뒤집고 싶었어요. 다수의 의견이 새로운 경로를 개척해 준다는 긍정적인 뜻으로요.

현재는 금토산, 검단산, 청계산 등 성남 인근의 산들을 하나의 '현장 스튜디오'처럼 반복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풍경을 재현하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산이 지닌 특성을 재료의 물성으로 구현해 보는 거죠. 공기의 습도나 흙의 입자, 빛의 방향, 미생물의 흔적 같은 요소들이 색감이나 결합 방식, 표면의 질감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 돌, 흙, 나뭇가지 등을 소량만 채집하여 세척과 건조, 분쇄와 압착을 거쳐 안료, 시트, 그리고 군사 기반 조형 재료 등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보고 있어요.

**'최소 채집의 윤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노력이 인상적입니다.**

사실 최소 채집은 윤리적인 선언 이전에 몸의 문제이기도 해요. 산길을 오래 걸어야 하니까 많이 가져갈 수 없거든요. 몸이 무거워지면 집중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의 돌이나 작은 통 하나만큼의 흙만 가

져오게 돼요. 산행도 되도록 양복 세 시간을 넘지 않아요. 더 오래는 못 다니겠더라고요(웃음). 제게 채집은 수집보다 관찰에 가까워요. 최근에 숲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산에 갔을 때 단순히 말라비틀어진 낙엽인 줄 알았던 뽕가지를 자세히 보니 애벌레가 집을 지었던 자취더라고요. 그런 걸 알고 나면 무언가를 함부로 가져오는 일이 더욱 조심스러워지죠.

**전시를 구성해 나가는 세세한 작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드로잉이나 조형 작업은 산에서 가져온 재료를 변형해 새로운 물성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나뭇가지를 구워 목탄을 만들기도 하고, 흙을 갈아서 안료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군사체를 배양해서 블록 형태로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버섯 배지를 활용한 작업도 계속 시도 중입니다. 반죽처럼 주물러 군사체를 만들어 미강이나 밀가루를 섞어서 24도의 실내에 사흘간 두면 천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

하고 며칠 후에는 더 하얗게 피어오르거든요. 그 위에 인두로 글씨를 쓰면 얼마 뒤에 파였던 부분이 다시 차올라요.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틈을 메우지만, 배지가 죽으면 더는 그 자국이 회복되지 않아요. 사운드 작업은 산의 지표면과 지중에서 채집한 소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흙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나 개미가 지나가는 움직임 따위의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결과를 고정하기보다 과정을 확장해 나가는 프로젝트라, 작업 방식도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실패한 샘플도 공개할 예정이시라고요?**

군사체 작업에서 실패는 빈번합니다. 온도를 잘못 맞추면 형태가 무너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정말 실패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실패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온도에서 무너졌는지, 어떤 시점에서 변형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로 쌓이는 거예요. 작년에 실패했던 샘플들도 버리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흔적이 남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사라진 것들이 이후 작업의 기준이 되어 주거든요. 다음 연구를 위한 표본이랄까요. 이번 전시에서 그런 실패의 흔적을 가감 없이 드러내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목적을 결과에 두지 않고 과정에 둔, 일종의 실험이니까요. 저희 작업이 '재료를 꼭 구매했는데 작업해야 할까?' '생산 프로세스를 바꿀 수는 없을까?' 등의 질문을 던지는 시작점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실패 또한 숨길 이유가 없죠.

**낙엽과 돌이 홍보에도 쓰인다는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상적이되 영구적이지 않은 홍보 형태를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낙엽 위에 레이저 각인을 해서 QR 코드를 남기는 식으로요. 길에 놓아두었다가 누군가 발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다만 낙엽은 표면이 일정하지 않아서 레이저 작업이 쉽지 않아요. 한동안 물에 적셔서 펴 놓기도 해 봤죠. 생각보다 손이 무척 많이 가더라고요. 돌의 경우 풀이나 한천을 사용해서 비가 오면 서서히 사라지는 이미지를 남겨 보려고 해요. QR 코드에는 전시 정보 외에도 저희가 산에서 발견한 식생이나 채집 과정, 숲해설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담아 볼까 합니다.



1. 산에서 재료를 관찰하고 채집하는 황희희 작가  
2. 버섯 배지에 커피 원두 찌꺼기(커피박)를 섞어 반죽해 군사체 블록을 만들고 있는 모습

### 전시 관람 시 고려하면 좋을 사항이 있을까요?

사전에 짜인 서사가 아닌, 개인의 흐름대로 움직이며 관람해 주시면 됩니다. 그간 전시 동선을 엄격하게 정해 둔 적이 거의 없어요. 작품 앞에 누군가 서 있으면 당연히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새로운 시각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전시도 어느 방향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해요. 작가별로 공간이 나뉘지도 않을 겁니다. 동일한 작가의 작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 관람객들이 전시 이후에도 '들여다보려는 태도'를 견지하려면 일상에서 어떤 시도를 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한 번쯤 끄그러 앉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낮아진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이전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낮선 벌레도 보이고, 작은 식물도 보이고, 동시에 버려진 쓰레기도 보이죠. 그런 시도가 세상을 향한 감각을 조금씩 일깨워 줄 겁니다. 무엇이 함부로 버려지고 있는지, 무엇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벌레 알레르기가 상당히 심해서 산에 오를 때마다 약을 잔뜩 챙겨 가요. 그런데도 매번 산에 가는 이유는, 일상에서는 접할 수 없는 감각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색감이며 냄새, 습도 등요. 자연은 불편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해요.

### 작년 여름에는 의정부에서 열린 뻬뻬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성남에서의 프로젝트가 지역의 자연에 집중한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의 생활에 주목하셨는데요, 이렇듯 '지역성'을 창작의 소재로 삼으시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뻬뻬 프로젝트는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진행되었어요. 그곳은 미군 기지와 여성들의 삶,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마을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쉽게 지워지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권 활동가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존재했던 사건과 삶의 흔적들이 사라진 것처럼 잊히는 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2024년부터 뻬뻬 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두레방(옛 성병보건소)이 사용하던 공간 이전 문제와 연결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삼목 작업도 하고, 수락산에서 주운 돌을 깎고 갈아 보석처럼 가공한 반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또 지난해에는 집수리를 도와드리면서 나온 폐기물들로 설치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은 지역의 서사를 빠르게 해석하기보다, 마을과 심리



적으로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이 제작 방식을 통해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면서, 예술가 개인보다 예술의 방식 자체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 준다는 걸 체감했어요. 제가 지역을 다루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역은 결국 누군가 살아온 시간과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니까요.

### 앞으로 염두에 둔 소재가 있으신가요?

'소재'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네요. 딱히 무엇을 다뤄야겠다고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단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항상 찾아보고 있죠. 대부분의 작업이 어떤 불편함에서 시작돼요. '왜 꼭 이렇게 해야 하지?' '왜 이런 구조로만 움직이지?' 따위의 질문들이요. 때로는 시민으로서 느끼는 불편함일 수도 있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발견하게 되

아하는 사람이에요. 해루질을 하겠다고 바다에 가서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동료 작가가 "왜 그렇게 보고만 있냐"라고 물을 정도로요. 제게는 그런 시간이 소중해요. 그런 경험이 작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심리적 거점이 오랜 시간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당 집이 귀환의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움직이고 경험하되, 다시 돌아와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황지희 작가는 2017년 유연한 예술단체 '프로젝트에이'를 설립한 후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6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시작다원 부문 선정작 <크크크: 산으로 간 배>를 송수영·이다연·홍근영 작가와 함께, 8월 15일(토)~23일(일)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아트×테크 창작랩에서 선보인다.

1. 지난해 군사체를 소재로 사라짐과 폐기, 경계와 고립의 시대에 예술의 연결성을 탐구한 전시 <아무데도, 어디에나>
2. 성남 일대의 산에서 최소 채집으로 가져온 식물과 나뭇가지. 빛은 현장 채집 작업을 하는데 필수품이다



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술이라는 게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을 상상해 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도 지역과 사람,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에 계속 관심을 두게 될 듯합니다. 묻혀서는 안 되는 것들, 너무 쉽게 외면당하는 것들이요.

### 작가님 개인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저는 평소에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1년의 절반을 집 밖에서 보낸 적도 있어요. 직접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냄새를 맡고 습도를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지인들은 흑한에도 캠핑하러 다니는 저를 보며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라 말하는데, 실제로 저는 뭔가를 열심히 한다기보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는 걸 좋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백스테이지 투어

평일 낮, 성남아트센터를 가다

# 성남으로 떠나는 한낮의 문화 산책

성남아트센터가 평일 낮 문화예술 라이프스타일을 이끄는 새로운 문화 핫플레이스로 시민들의 생활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해설이 있는 오전 클래식 공연부터 세계의 음악과 문화를 만나는 <오후의 콘서트>, 무대 뒤 생생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전시 관람, 야외 계단에서 즐기는 음악회와 광장 도서관까지. 공연장과 미술관, 광장과 잔디밭을 오가는 발걸음 속에서 성남아트센터의 낮 풍경은 시민들이 머물고 즐기는 일상의 문화 심포로 채워진다. 성남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한낮의 문화 산책을 따라가 보았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 주말 저녁보다 알찬 평일 낮 공연 프로그램

지난 5월 6일(수) 오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는 낮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점심시간의 분주함이 지나고 일상이 잠시 느슨해지는 시간, 성남아트센터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오후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이었다.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콘셉트로 한 이 시리즈는 매달 한 나라의 음악과 문화, 이야기를 연주와 해설로 풀어낸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진행을 맡아 관객과 무대 사이를 자연스럽게 잇고, 평범한 오후를 문화예술로 채우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이귀숙·최정은 씨(성남시 분당구 판교

동)는 “평소 상송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음악에 푹 빠질 수 있는 공연이라 무척 좋았다”라며 “주말 저녁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해서 공연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평일 낮 공연이 생겨 일상 속 일탈처럼 즐기기가 좋다. 특히 오후 3시는 친구들과 공연을 보고 저녁 식사까지 이어 가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오후의 콘서트>는 6월 브라질 보사노바, 9월 아르헨티나 탱고, 10월 폴란드와 쇼팽, 11월 미국 재즈, 12월 이탈리아 오페라로 공연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남아트센터의 대표 오전 공연인 <마티네 콘서트> 역시 해설이 있는 클래식 무대로 오랜 시간 평일 낮 공연의 매력을 보여 주고 있다.



### 무대 뒤에서 전시 공간까지, 성남아트센터 속속들이 탐방

지난 5월 21일(목) 올해 새롭게 개편한 성남아트센터 투어 프로그램의 첫 회 차가 열렸다. 공연을 ‘관람’하는 공간에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마주하는 순간, 참가 시민들은 객석과 무대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 성남아트센터의 새로운 면면을 만났다.

투어 프로그램은 성남문화재단과 아트센터 소개로 시작해 오페라하우스 백스테이지 견학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무대 뒤 공간을 둘러보는 한편, 조명·음향·영상이 어우러진 시연을 통해 객석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공연장의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체험했다. 이어 세계악기전시관에서는 각국의 악기를 해설과 함께 살펴보고,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동시대미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 전시와

상설전시실에서 열리는 디지털소장품주제기획전 <0과 1 사이>도 관람했다. 무대 뒤에서 시작해 세계악기전시관과 미술관까지 이어진 이번 투어를 통해 성남아트센터는 공연과 전시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문화예술 탐방로로 새롭게 다가왔다.

-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세계의 음악을 탐방하는 <오후의 콘서트>
- 2. 나무와 자개를 소재로 한국적 미감을 현대적으로 담아낸 동시대미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 전시



1



2

1. 성남아트센터 야외 계단에서 진행된 <한낮의 음악회>  
2. 성남아트센터 특화 거리로 조성된 <책 읽는 광장 도서관>

### 야외 공간에서 즐기는 문화 사색

성남아트센터에서 만나는 한낮의 문화예술 풍경은 광장과 야외 계단, 특화 거리 잔디밭까지 이어진다.

지난 4월 16일(목), <마티네 콘서트>가 끝난 뒤 오페라하우스 옆 야외 계단에서는 성남의 생활문화동호회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참여한 '한낮의 음악회'가 열렸다. 공연장을 나선 관객들은 음악 소리에 이끌려 계단과 광장에 잠시 머물렀고, 야외 공간은 자연스럽게 열린 무대가 되었다. '한낮의 음악회'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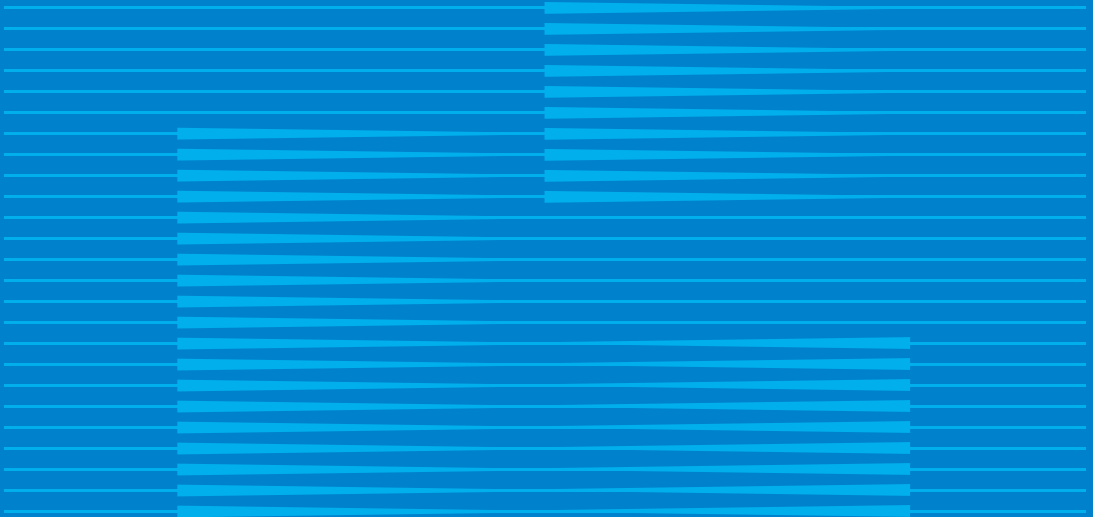
지난 3월 특화 거리 잔디밭에 조성된 '책 읽는 광장 도서관'도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심터로 여유를 선사한다. 책을 펼치고 앉은 시민들, 잔디밭을 거니는 가족, 공연과 전시 관람 후 광장에 머무는 관객들의 모습이 어우러지며 성남아트센터의 낮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평일 낮의 문화예술 경험은 이제 일상에 여유와 활력을 더하는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음악을 듣고, 전시를 보고, 무대 뒤를 걷고, 야외 공간에서 쉬어 가는 시간은 바쁜 하루 중 잠시 숨을 고르는 문화적 침묵이 된다.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예술의 시간을 더하고 있는 성남아트센터의 한낮은 앞으로 더 많은 발걸음으로 채워질 것이다.

#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성남아트센터가이드  
2026년 6월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 2026.06

Ⓞ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 앙상블시어터

Ⓞ 성남아트리움  
Ⓞ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 어린이 서커스 마술쇼 (11:00, 14:00, 16:30)	4	5 ◆ Ⓞ 오페라 정원 <피가로의 결혼> (19:30)	6 Ⓞ 아우름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11:00, 14:00, 16:30) Ⓞ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11:00, 14:00, 16:30)	7 Ⓞ <THE 이재훈 전국투어 콘서트- Come On>(17:00) Ⓞ RAO 정기연주회(19:30) Ⓞ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11:00, 14:00, 16:30) Ⓞ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11:00, 14:00, 16:30)
8 ◆ Ⓞ 무료 정기 상영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14:00)	9	10 ◆ Ⓞ 오후의 콘서트(15:00)	11 Ⓞ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해설 음악회 (19:30) Ⓞ 가족뮤지컬 <신데렐라>(11:00)	12 ◆ Ⓞ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19:30) Ⓞ 아마쿠스 정기연주회(19:30) Ⓞ 굿닥터 <웃픈 이야기>(16:00, 19:30) Ⓞ 가족뮤지컬 <신데렐라>(11:00)	13 ◆ Ⓞ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15:00) Ⓞ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1:00, 14:00, 16:30)	14 Ⓞ 카츄시카 트리오 내한공연(18:00) Ⓞ 엘리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 트리오 여유 콘서트(18:00) Ⓞ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1:00, 14:00, 16:30)
15 ◆ Ⓞ 무료 정기 상영 <나의 소녀시대>(14:00)	16	17 Ⓞ 자선음악회 <그대 있음에>(19:00)	18 ◆ Ⓞ 마티네 콘서트(11:00) Ⓞ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들樂날樂>(19:30)	19 Ⓞ 송파뮤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 Souvenirs 콘서트 시리즈 V(19:30)	20 Ⓞ <현역가왕3> 전국투어 콘서트 (13:00, 18:00) Ⓞ 제40회 성남문화예술제 무용제 (16:00)	21 Ⓞ 제40회 성남문화예술제 음악제 (19:00) Ⓞ 제40회 성남문화예술제 무용제 (17:00)
22 ◆ Ⓞ 무료 정기 상영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14:00)	23	24	25	26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 Ⓞ 연극만원 <망원동 브라더스> (14:00, 19:30)	27 Ⓞ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안중근> (11:00, 14:00, 16:30) Ⓞ 성남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 Ⓞ 연극만원 <망원동 브라더스> (14:00, 18:00) ◆ Ⓞ 임선혜 & 이동규 <러브 듀엣>(17:00)	28 Ⓞ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안중근> (11:00, 14:00) Ⓞ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FESTA (14:00) Ⓞ 아람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19:00)
29 ◆ Ⓞ 무료 정기 상영 <너를 만난 여름>(14:00)	30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 2026 동시대미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	4월 10일~6월 7일	기획전시실
◆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II: 디지털 신소장품전 <0과 1 사이>	5월 8일~7월 5일	상설전시실
◆ 2026 성남작가조명전II 김홍년 <꿈의 대화: Dreams in Dialogue>	5월 15일~7월 12일	반달갤러리
◆ 2026 여름특별기획전 <캐서린 번하드 특별전>	7월 3일~9월 6일	기획전시실

갤러리808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제4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부문	5월 24일~6월 4일	제19회 솟대를 흐르는 숨결전	7월 11일~7월 18일
2026 성남문화예술제 - 성남미술협회전	6월 7일~6월 14일	동시대적 Balance	7월 11일~7월 18일
2026 성남문화예술제 - 성남사진작가협회전	6월 17일~6월 24일	With Love Art Fair	7월 21일~7월 28일
제41회 모란현대미술대전 제14회 성남전통미술대전	6월 28일~7월 8일	RE Image: 사진의 연금술	7월 31일~8월 7일
		류향·Fluensia: 자연의 흐름이 공명하는 율림	7월 31일~8월 7일

# 성남아트센터 안내도



## 1 오페라하우스

- 1-1 B1 갤러리808, 레스토랑 피글릿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 2F 세계악기전시관

## 2 콘서트홀

- B1 아카데미 음악실
-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 3 양상블시어터

-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 1F 양상블시어터 로비
- 2F 아카데미 강의실

## 4 큐브플라자

- 4-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 4-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 4-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 4-4 성남미디어센터
- 4-5 미디어홀
- 4-6 카페 브람스 큐브
- 4-7 큐브사랑방
- 4-8 약기랑

## 5 안내

- I Plaza 종합안내소

## 6 사무동

- 1F 컨퍼런스홀

## 7 야외광장 + 특화거리

## P 주차장

- P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 P2 콘서트홀 주차장
- P3 야외주차장

← 아탑역 방면

후문 정산소

정문 정산소  
이매역 방면 →

**오페라정원**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티켓 전석 40,000원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2026.6.5.FRI  
7:3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오페라정원**  
콘서트 오페라 <바람의 노래>



한국동요의 서정으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감성 짙은 창작 오페라

티켓 전석 40,000원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2026.7.11.SAT  
5:0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오페라 정원 <피가로의 결혼>  
+ <바람의 노래>**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피가로의 결혼> 6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바람의 노래> 7월 11일(토) 오후 5시

티켓 전석 40,000원

문의 031-783-8000

콘서트 오페라 시리즈 '오페라 정원'이 두 편의 작품으로 초여름 관객을 만난다. 6월에는 모차르트의 걸작 <피가로의 결혼>을 선보인다. 백작의 저택을 배경으로 신분과 사랑, 욕망이 뒤얽힌 하루를 풍자와 유머로 풀어낸 작품으로 홍석원 지휘자와 엄숙정 연출가, 바리톤 김종표, 소프라노 박소영 등이 함께한다. 7월에는 지난해 창작오페라로 초연한 <바람의 노래>가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산바람 강바람' '누가 누가 잠자나' 등을 남긴 작곡가 박태현의 동요 선율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과 희망의 이야기를 전한다. 김덕기 지휘자와 조은비 연출가가 초연에 이어 다시 합류하며, 지역 성악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소프라노 허희경 등이 출연한다.

오후의콘서트  
예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네 번째 여정  
속삭이는 파도,  
보사노바의 리듬

2026.6.10.WED  
3:0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031-783-8000

## 오후의콘서트 6월 <속삭이는 파도, 보사노바의 리듬>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오후의 콘서트가 6월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선율을 담은 보사노바의 세계로 관객을 안내한다. 부드러운 멜로디에 시처럼 쓰인 가사, 사랑과 그리움, 일상의 순간을 담은 보사노바 명곡들을 통해 차분하고 감미로운 도시 음악의 매력을 전한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해설을 맡고, 코랄리스트 나희경과 기타-콘트라베이스-드럼-플루트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보사노바 특유의 리듬과 정서를 들려줄 예정이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6월 10일(수) 오후 3시  
티켓 전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아나운서 한석준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마티네콘서트

독일, 음악의 숲

6월 18일  
낭만에서 낭만으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정찬민, 바이올린 윤소영

멘델스존 <필할의 동굴> 서곡 OP. 26  
Mendelssohn Overture "Die Hebriden" (Fingal's Cave), Op. 26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OP. 64  
Mendelssohn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 64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  
R. Strauss Der Rosenkavalier Suite (TV 227d)

7월 16일  
노래하는 현, 사유하는 현  
발트앙상블, 첼로 박지혜

멘델스존 현악 교향곡 3번 E장조  
Mendelssohn String Symphony No. 6 in E-flat major  
C. P. E. 바흐 첼로 협주곡 1번 E단조 WQ 170  
C. P. E. Bach Cello Concerto No. 1 in A minor, Wq 170  
브람스 인테르메조 OP. 118 NO. 2(현악사중주 버전)  
Brahms Intermezzo, Op. 118, No. 2(int. for String Quartet)  
슈트라우스 23개의 독주 현악기를 위한 '메타모르포시스'  
R. Strauss "Metamorphosen" for 23 Solo Strings

3월~12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SNART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 마티네콘서트 6월 <낭만에서 낭만으로>

올 한 해 독일의 찬란한 음악 유산을 탐구하는 2026 마티네콘서트가 6월에는 <낭만에서 낭만으로>를 주제로 관객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멘델스존의 서정적인 낭만에서 슈트라우스의 화려한 후기 낭만으로 이어지는 독일 음악의 흐름을 들려준다. 지휘자 정찬민이 이끄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멘델스존의 <필할의 동굴> 서곡과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모음곡을 연주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이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로 깊은 서정을 전한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6월 18일(목) 오전 11시  
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828.8.50.000 / 1840.000 / A.40.000

2026.  
6.12.FRI 7:30PM  
6.13.SAT 3:0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고전 발레의 명작,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가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른다. 백조로 변한 공주 오데트와 지그프리트 왕자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미장센이 돋보이는 백조 군무와 화려한 기교의 흑조 그랑 파드되 등 클래식 발레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오데트와 오딜役に 박슬기와 안수연, 지그프리트 왕자役に 허서명·박종석 등 국립발레단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이 함께한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6월 12일(금) 오후 7시 30분, 13일(토) 오후 3시  
티켓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문의 031-783-8000

연극만원

망원동 브라더스

2026.  
6.26.FRI 2PM & 7:30PM  
6.27.SAT 2PM & 6PM

SNART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031-783-8000

## 연극만원Ⅲ <망원동 브라더스>

연극계 화제작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하는 연극만원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은 연극 <망원동 브라더스>다. 밀리언셀러 작가 김호연의 데뷔작이자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망원동 옥탑방에 모여든 '연체된 인생'들의 유쾌하고 기묘한 동거를 그린다. 만화가 영준을 중심으로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부딪치고 기대며, 딱딱한 현실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과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6월 26일(금) 오후 2시·7시 30분, 27일(토) 오후 2시·6시  
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



## 임선혜 & 이동규 <러브 듀엣>

한국 성악계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임선혜와 카운터테너 이동규가 20여 년 만에 <러브 듀엣>으로 다시 한 무대에 오른다. 2007년 성남아트센터 무대에서 '신성한 사랑'을 주제로 성가곡을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던 두 사람은 이번 성남아트리움 공연에서 헨델과 모차르트 오페라 속 드라마틱한 명장면을 중심으로 '사랑'의 음악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이해원과 테너 존노가 게스트로 함께하고,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이 연주를 맡는다.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6월 27일(토) 오후 5시  
티켓 R석 60,000원, S석 40,000원  
문의 031-783-8000



## 성남아트리움 모닝 콘서트II <소리꾼 김준수>

성남아트리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모닝 콘서트의 두 번째 무대에 소리꾼 김준수가 오른다. 판소리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동시대 무대예술의 확장을 이끌어 온 김준수는 탄탄한 소리 공력과 세련된 음악적 감각으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우리 음악의 생생한 가능성을 들려준다. 전통의 깊이에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김준수만의 무대가 여름의 오전을 시원한 우리 소리의 에너지로 채울 예정이다.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7월 22일(수) 오전 11시  
티켓 전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 2026 발레 스타즈

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발레 갈라 공연 <2026 발레 스타즈>가 올해에도 관객을 찾아온다. 김용걸 예술감독이 이끄는 이번 무대에는 영국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이상은, 보스턴발레단 수석 무용수 채지영, 영국 로열발레단 박하나, 쿠마카와 테츠야 K-발레 도쿄의 이이지마 노조미와 야마모토 마사야 등 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무용수들이 함께한다. 여기에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주목받은 신예 박윤재와 염다연이 가세해 클래식 발레부터 컨템퍼러리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펼쳐 보인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7월 25일(토) 오후 5시  
티켓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B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 2026 여름특별기획전 <캐서린 번하드 특별전>

현대미술의 역동적인 회화 언어를 대표하는 캐서린 번하드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 보는 <캐서린 번하드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슈퍼모델, 핑크 팬더, E.T., 피카추, 심슨 등 대중문화와 일상 속 익숙한 이미지를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붓질로 풀어 온 작가의 작업을 초기 회화부터 패턴 회화, 소비문화와 대중문화 아이콘을 다룬 작품까지 폭넓게 소개하며, 회화가 지닌 자유와 가능성을 보여 준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7월 3일(금)~9월 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성인 15,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10,000원  
문의 031-783-8142-9

# Dreams in Dialogue

## 꿈의 대화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2026.5.15 ————— 2026.7.12

성남큐브미술관 130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영동로 808 1층 10:00-18:00 (031)783-8142-9 www.seongnamcenter.or.kr

## 2026 성남작가조명전II 김홍년 <꿈의 대화: Dreams in Dialogue>

지역 작가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의 두 번째 전시로 서양화가 김홍년의 <꿈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 한국미술의 장르 해체와 혼합의 흐름 속에서 설치와 평면 작업을 병행하며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의 40여 년 작업을 돌아본다. 최근 작업의 중심을 이루는 <화집> 연작부터 1980~90년대 초기 작업까지 아우르며, 한국현대미술사 속 김홍년의 예술적 의미를 되짚는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5월 15일(금)-7월 1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성남아트센터 투어 프로그램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2: 디지털소상공품전

정상현 이문희  
김우진 임정은  
김미경 조이경  
이지연  
정석희 김시연

# 0과 1 사이

BETWEEN 0 AND 1

2026. 5. 8. FRI - 7. 5. SUN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성남큐브미술관 130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영동로 808 1층 10:00-18:00 (031)783-8142-9 www.seongnamcenter.or.kr

##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II <0과 1 사이>

올해 두 번째 소장품주제기획전 <0과 1 사이>는 성남큐브미술관의 디지털 장르 소장품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고 변환되는 이미지의 조건을 살펴보는 전시다. 김우진, 정석희, 정상현, 이문희, 김시연, 김미경, 조이경, 이지연, 임정은 작가의 영상과 프린트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가 시간과 물성 속에서 확장되는 과정과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조망한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5월 8일(금)-7월 5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투어 프로그램' 개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은 낮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성남아트센터를 보다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운영하던 백스테이지 투어를 확장해, 오페라하우스 무대 뒤 공간은 물론 세계악기전시관과 미술관까지 아트센터 곳곳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했다. 참여자들은 재단과 아트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오페라하우스 무대 뒤 공간 탐방, 조명·음향·영상이 어우러진 퍼포먼스 시연, 세계 각국 악기를 해설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악기전시관 투어, 도슨트와 함께하는 전시 관

람 등을 차례로 경험할 수 있다. 지난 5월 21일(목) 진행된 첫 투어에서는 성남큐브미술관 동시대미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를 관람했다. 6월과 7월에는 성남작가조명전II <김홍년: 꿈의 대화> 전시와 연계해 진행된다. 또한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들의 '한낮의 음악회'까지 더해져 성남아트센터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의 매력을 한층 다채롭게 펼쳐 보인다. 향후 투어는 6월 25일(목)과 7월 9일(목)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총 4회 운영되며, 한 회당 30명 내외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성남문화재단, 올해 전시 공모사업 4건 선정

성남문화재단은 2026년 전시 관련 공모사업 4건에 잇따라 선정되며 전시 콘텐츠 확장에 나선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전시 활성화 지원사업,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전시 사업,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월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지역전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7월 3일(금)부터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실에서 여름특별기획전 <캐서린 번하드 특별전>을 개최한다. 미국 출신 현대미술 작가 캐서린 번하드의 초기작부터 6미터 규모의 대형 신작까지 원화 120여 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10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열어, 복합 매체와 미디어 아트 등 소장품 30여 점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다양한 감각으로 미술을 경험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오감에서 영감까지 in 성남큐브미술관>과 장애인·비장애 시민과 함께하는 <함께누리예술전>을 선보이며, 참여형 무장애 전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큐브미술관



## 성남물빛정원,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성남시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조성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남물빛정원은 28년간 방치됐던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도시재생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산책길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9월에는 옛 하수처리장 유입 펌프동을 리모델링한 뮤지엄을 개관했다. 현재 뮤지엄은 카페와 연습실, 악기 보관실 등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매주 기획공연과 음악회 등이 열리고 있다. 성남물빛정원은 산업시설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시민친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성남시는 2023년 대상, 2024년 우수상, 2025년 우수상과 장려상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 제40회 성남문화예술제 시민백일장 공모

(사)한국예총 성남지회가 제40회 성남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시민 대상 백일장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소년의 문학적 자질을 발굴하고 시민의 문학적 정서와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성남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시와 수필이며 주제는 자유다. 6월 11일(목) 오후 6시까지 이메일(yyeji@hanmail.net) 또는 (사)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우편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식은 7월 12일(일) 오후 2시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열리며, 입상작은 추후 단행본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예총 성남지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사) 한국예총 성남지회 031-753-1020 / (사)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010-8528-5090

**성남시민을 위한 문학축제**  
제40회 성남문화예술제  
**시민백일장 공모전**

청소년에게는 문학적 재능을 발굴하고, 시민에게는 문학적 향수 충족과 정서를 함양시키는 권위있는 대회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분야** 시·수필 (시·수필·시·수필)  
**대상** 2026. 7. 12 오후 2시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신청 방법** 2026. 6. 11 (목) 오후 6시 도착까지  
**접수처** 이메일: yyeji@hanmail.net (가급적 개인 접수 바람)  
주최: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성남지부 (주관: (사)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후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사)한국문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사)경기도문인협회, 계간 '문학가', 우리문학신문, 성남시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성남아트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편의 오페라 같은 드라마틱 콘서트  
**임선혜 & 이동규**



©Chagoon

©Sangyeok Lee

*Love Duet*

소프라노 임선혜 • 카운터테너 이동규 • 소프라노 이해원 • 테너 존노 지휘 김성진 •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2026. 6. 27. Sat. 17:00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주최/주관 ————— 티켓 ————— 예매 ————— 문의 —————  
성남문화재단 R석 6만원 / S석 4만원 / 시야장애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NOL ticket 1544-8117 031-783-8000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연우보험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태평염전 사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이앤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철쭉회원

김부경/김모민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김상한/오다영 아람휴비스(주) CEO  
박동순/강송희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변봉덕/이매연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우문식/조남숙 (주)인베이트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상우/강지선 (주)픽셀플러스 대표이사  
이서규/황혜숙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육션 이사

탄천회원

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박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전(주)씨너스 회장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품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고옥주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예정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우 산후조리원 라크렐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복기 전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김연태/이주숙

김영수/원종순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전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중현/정승희

김진환/이화용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주)한정종합의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궁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터리 3600지구 전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명화기업 이사  
배지영/윤영민 로즈피부와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백종훈/지용애

서정림 한국디지털콘텐츠(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서정림

손의명/손의자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치과의사 / 한국화가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오동영/이승희

유성희/유성은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주)인홍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연옥/조상수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이경화/이정우

이윤이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주)한술교육 대표이사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이민수/김순건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상규/정효정

임인선/채인호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 /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임한주/김윤선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엠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형환/임경희

전병자/김정길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서양화가 / JKK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정승립/한정복 (주)패션이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상설

정은경/박민걸 성남FM방송국 대표  
영양학박사 / 영당의원 원장

정은기/박은숙

정인택/유경희 (주)신라아트 명예부사장  
신라아트 명예부사장

조남주/이규칠

최병주/박인수 미술단체 <線과色> 前 명예회장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론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최은희/연형모 (주)특수건설 회장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탁순희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기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홍애자

황광석/조영순 수필가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윤향남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화가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까지회원

김상수 (주)UBE모터스 고문  
김성민 운중농원갈비 대표

김홍태

백성정 하티코리아(주) 대표이사  
오미주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이기영

(주)리크루즈 여행 대표이사

명예회원

박명숙 전(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전(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황광석  
부회장 김연태, 최은희, 윤영상  
이사 김연태, 윤영상, 김명순, 김상한, 허용무,  
김선애, 최은희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 도심 속 자연과 음악이 만나는 무대

성남 곳곳에 자리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공간을 살펴보는 코너!

성남 시민의 쉼터인 분당중앙공원, 이곳에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드넓은 잔디밭에 아름다운 음악과 삶의 여유가 넘치는 곳, 바로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입니다.

글 강준구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성남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산책로로 사랑받는 분당중앙공원 안에 자리한 야외공연장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얼마나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졌는가 하면, 지난해 성남페스티벌 축제를 준비하면서 토끼와 너구리 친구들을 만났을 정도입니다.

야외공연장은 비가 와도 공연 관람이 가능한 480석의 계단식 원형 객석과 최대 1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6,600m<sup>2</sup> 규모의 잔디 언덕에 수준 높은 음향·조명 시설과 출연진 편의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어 야외 공연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야외공연장에서 많은 공연과 행사가 열리지만, 그중에서도

매년 이곳에서 펼쳐지는 <파크 콘서트>를 빼놓을 수 없지요. 2013년에 시작해 10여 년간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많은 시민에게서 사랑받는 무료 야외 공연입니다.

지난 3월 가수 신승훈·박정현의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를 만나 보았고요, 하반기에도 최고의 뮤지션들이 도심의 밤을 음악으로 수놓을 예정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돛자리를 들고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숲속 음악회를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 분당중앙공원 내